성북동 사람들의 마을 이야기는

성북동을 사랑하는 사람들 모임인 '성북동천'이 발행하는 마을 잡지입니다.
이 잡지는 서울시 마을미디어 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아 간행되었습니다.

성북동 마을 잡지 2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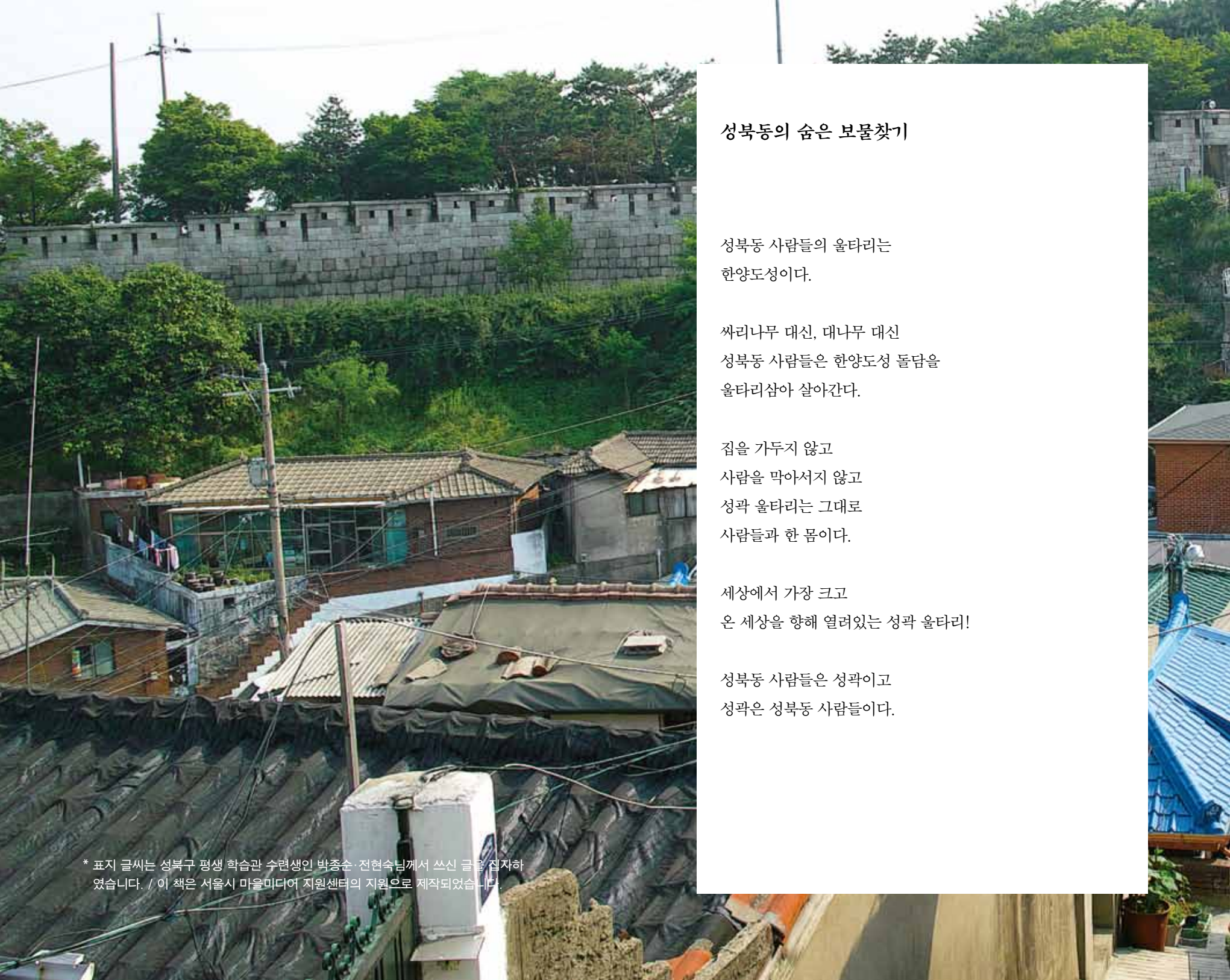
성북동 사람들의 마을 이야기



희망제작소 초록우상 O'NewWall SPACE 내셔널트러스트 문화유산기금 The Cultural Heritage Foundation, National Trust of Korea 서울특별시

SEOUL 마을미디어지원센터

성북동천



성북동의 숨은 보물찾기

성북동 사람들의 울타리는
한양도성이다.

싸리나무 대신, 대나무 대신
성북동 사람들은 한양도성 돌담을
울타리삼아 살아간다.

집을 가두지 않고
사람을 막아서지 않고
성곽 울타리는 그대로
사람들과 한 몸이다.

세상에서 가장 크고
온 세상을 향해 열려있는 성곽 울타리!

성북동 사람들은 성곽이고
성곽은 성북동 사람들이다.

* 표지 글씨는 성북구 평생 학습관 수련생인 박종순·전현숙님께서 쓰신 글을 집자하였습니다. / 이 책은 서울시 마을미디어 지원센터의 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차례

1p 성북동의 숨은 보물 찾기

5p 성북동
권두 칼럼, 북둔의 아침 창가에서 / 서준호

기억

8p 영순씨네 집 매화나무
시와 그림으로 보는 성북동 풍경 / 최성수 시, 김철우 그림

12p 내가 살던 성북동의 기억, 성북동 풍경
성북동 이야기 / 권순긍

22p 시간이 멈춰있는 문방구 할아버지
인터뷰, 성북동에서 만난 사람 / 박진하

자취

30p 성북의 역사 문화 유산
최연

47p 우리 마을의 자랑거리, 간송미술관
우리동네 문화재 / 오예주

51p 간송미술관을 세운 전형필<만화>
최진형 글, 안시은 그림

사는 이야기

56p 골목이 있는 마을, 사람이 사는 동네, 성북동
〈성북동 마을 기행〉 참가기 / 강서희

60p 한번 가고나면 다시 찾게 되는 우리동네 빵집
우리 가게를 소개합니다. / 김홍식 정리

71p 집, 사람 그리고 시간
사라지기 쉬운 현수막 프로젝트 / 최영환

74p 17717의 시작을 알립니다
한장 스케치

시간이 머무는 곳, 북정마을
특집, 골목 이야기 1

80p 북정마을 골목 이야기
골목 탐방기 / 장영철

86p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살고 싶어요
인터뷰 / 박정순

시가 있는 풍경

92p 단팥죽 / 최헌자
아버지의 사이판 / 최성호
그냥 냅둬어 / 박성애

성북동천 이야기

99p 성북동, 시로 물들다
마을 학교 개최 예정

압축화로 그린 성북동 / 안시은



권두 칼럼 / 북둔의 아침 창가에서

성북동

서준호

언젠가부터 속도가 우리 삶을 지배하는 듯 모든 것이 바삐 움직이고 변화하기 시작했다. 어릴 적 친구들과 뛰어 놀던 골목은 온 데 간 데 없고, 고향집 자리에는 고층 빌딩이 들어서, 저기 어딘에 우리 집이 있었다는 기억만이 남아있다. 삼십 대 중반인 내가 기억하는 내 주변와 한국의 모습은 너무나 빨리 바뀌어 갔다. 지저분한 도로와 노점들이 가득했던 왁자하던 시장은 점점 현대식으로 변해가고, 우리는 대형마트에 가는 것을 당연한 듯 여긴다. 8비트 컴퓨터는 스마트폰으로 변했고, 비둘기호 열차는 사라지고 고속열차로 바뀌었다. 사춘기 때 읽었던 '아시아는 커다란 공사장'이라는 잡지 기사는 아직도 유효하다.

내가 그런 변화를 느끼기 훨씬 전인 60년대 말, 김광섭 시인은 성북동의 변해가는 모습을 안타깝게 노래했다. 고향이 부산인 나에게 서울은 63빌딩과 한강, 성북동, 압구정동 오렌지 족, 무너진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 등이 한데 뒤섞인 이미지였고 비둘기가 사는 성북동은 막연한 동경과 향수가 어우러지는 곳이었다. 서울에서 유학하며 겪은 서울의 변화는 고향보다 더 빨랐고, 눈에 보일 듯 시시각각 달랐다. 그런 점에서 보자면 성북동에는 변화가 늦게 찾아왔다. 그렇기에 아직도 성북동은 오래된 마을이다.

예술가는 예술을 공부하고 예술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존재다. 성북동은 예술계의 변두리지만 마을과 함께 다양한 삶이 있는 곳이다. 그래서 나는 성북동 모퉁이에 작은 전시장을 열었다. 성북동은 성북로를 사이에 두고 북악산 남사면에는 부자들이 사는 큰 집이 모여 있고, 햇빛이 잘 들지 않는 북정마을엔 나이든 어르신들이 사는 조그만 집들이 모여 있다. 그리고 그 아래 돌을 깨고 만들어진 마을에는 중산층과 다양한 이들이 살고 있다.

오래 전부터 많은 예술가들이 성북동에 살았고 지금도 그렇다. 내가 성북동으로 와 전시장을 연 것처럼 최근 2~3년 사이 많은 젊은 예술가들이 성북동으로 모여들고 있다. 내게는 다양한 삶이 모여 있는 곳 자체가 흥미로운 지점이었고 더불어 재개발이 예정되어 있는 이곳을 조금은 예술적으로 지키자는/싸우자는 마음도 있었다. 50년의 세월을 돌아 또 다시 돌깨는 소리를 듣기 보다는 50년을 이어온 마을을 창의적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았다. 그래서 성북동을 '놀자판'으로 만들고 싶었다. 모든 주민들이 좋아하진 않겠지만 많은 주민들이 선잠로에서 벌어지는 공연과 행사들을 좋아한다. '동네를 놀자판'으로 만들고 있다고 고함지르던, 지금은 방을 뺀 '재개발 조합 사무소' 아저씨들만 제외한다면, 성북동 사람들은 동네에 활기를 불어넣는 문화를 사랑한다.

어디나 사람이 사는 곳에는 욕망이 존재한다. 그 욕망들이 삶을 이루고 마을을 이루고 도시를 이루고 나라를 만든다. 하지만 어떤 특정한 개인이나 기업의 욕망이 만드는 커다란 콘크리트 덩어리와 달리 소소하게 살아가는 이들 각자의 욕망이 만든 골목과 꽃길과 동네 풍경에는 사람 냄새가 난다. 거기에 더해 뜨내기인 나의 욕망 또한 성북동에 얹혀 커가고 있다. 도시는 인간들의 욕망과 삶의 흔적이 켜켜히 쌓여 만들어 진다. 그렇게 인간의 욕망은 모든 것들을 변하게 만들지

만 자본이 아닌 개개인의 욕망이 얽혀 천천히 변화하는 마을과 도시는 온기를 품고 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들여다 볼 수 있을 것이다.

역설적이게도 그런 성북동에 자리 잡은 나의 삶은 더욱 빨라지고 여기저기 부르는 곳이 많아져 삶을 들여다 볼 시간이 점점 줄어드는 듯하다. 하지만 여전히 나는 여기 성북동에서 내 나름의 삶의 속도를 느끼며 내 삶을 음미하길 희망한다.

최근 많은 이들이 성북동을 찾고 있고 변화 또한 가속도를 더해간다. 어쩌면 변화는 당연한지도 모른다 하지만 오래된 마을을 이어가며 문화적인 변화를 만들기 위해 성북동을 이루는 구성원들 모두 변화의 템포를 늦출 방법을 창의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

서준호는 성북동에 자리 잡고 있는 〈스페이스 오뉴월〉 대표이고, 미술 평론가다. 그의 시선은 소외되고 외로운 곳에 머문다. 그래서 미얀마를 비롯한 동남아시아 미술에 관심이 많고, 그들의 미술을 기획하고 전시하는 일을 자주 한다. 또 자신이 발 딛고 있는 지역이 곧 세계의 중심이라는 생각으로, 갤러리가 있는 성북동 사람들과 함께 일을 꾸미고 신명나는 문화를 만들어가기를 좋아한다.

시와 그림으로 보는 성북동 풍경

영순씨네 집 매화나무

최성수 시, 김철우 그림

성북동의 봄은 영순씨네 매화나무에서 온다

담벼락을 따라 고양이 등짝만한 화단에
기신기신 몸 기대고 서서
집 주인 영순씨처럼 곱게 늙은 매화나무
비둘기조차 꽁꽁 어는 겨울이 지나면
비로소 꽃망울 터트려 성북동의 봄 알리는 매화나무
매화꽃 벙글면 영순씨
손바닥만 한 가게 의자에 앉아 재봉틀 돌리고
돋보기 안경 너머 바느질 한다
재봉틀 소리에 맞춰 매화꽃
봄바람에 날린다
당뇨로 오래 몸 아팠던 할아버지
지팡이 짚고 나와 해바라기 하던 곳
저 썩을 놈들이
멀쩡히 잘 사는 집 허물겠다고 지랄이라고
재개발 조합을 향해 삿대질을 하던 할아버지는
매화꽃 피는 봄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떴다



할아버지는 없지만
영순씨는 올 봄도 어김없이 재봉틀을 돌린다
재개발 반대 유인물을 돌릴 때면 부끄러워
꽃잎처럼 살짝 볼이 물들던 영순씨
햇살도 지친 오후
돌리는 재봉틀 소리는 담벼락에 걸린
'내 집 냅둬' 현수막을 휘감고 마침내
성북동에 봄이 왔음을 알린다
선잠단지 쯤에서 성북동 비둘기가 물어와 내뱉은 오디씨가
매화나무 옆에 거처를 잡고 아이 팔뚝만큼 자랄 동안
며느리 맞고 손주 받은 영순씨네
무심한 세월들이 이 집에서 흘러갔다

성북동의 봄은 영순씨네 집 매화꽃이 피어야 온다

가게 유리창에 써놓은
'성북 홈 패션'
낡고 바랜 글자 위에 매화꽃 향기가 날려야

성북동에, 비로소, 봄이 온다

–

최성수는 성북동에서 약 46년간 살았으며, 시인이다. 〈천 년 전 같은 하루〉, 〈꽃, 꽃잎〉 등의 시집을 냈다. 성북동이 문화가 살아있는 마을이기를 꿈꾸고 있다.

김철우는 성북동에 살고 있는 화가다. 현재 '성북동천' 대표를 맡고 있으며,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놀고 이야기하며 문화를 만들어가는 일을 즐긴다.

내가 살던 성북동의 기억, 성북동 풍경

권순긍

1967년 중학교 입학시험이 한창이던 시절 초등학교 5학년이었던 나는 무작정(?) 상경하여 성북동에 둥지를 틀었다. 강원도 오지의 광산촌 철암(지금은 태백시 철암동으로 불림)에서 서울의 중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전학 온 것이었다. 어느 날 아버지가 나를 부르더니 너는 서울에 있는 중학교에 가야 한다며 교과서에 마름모 모양의 경기중학교(나는 왜 경기중학교가 경기도가 아니라 서울에 있나 의아해 했다. 그 학교가 소위 최고의 명문학교로 엄청나게 들어가기 어려운 데라는 것은 나중에 알았다.) 교표를 그려주시면서 상경을 지시했고 시골 오지 학교에 다녔던 나는 서울만 가면 모든 게 다 저절로 이루어지는 줄 알았다. 서울에서 하필 성북동으로 오게 된 것은 이모가 성북동에 살았기 때문이었다. 철암에 위치한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에 근무했던 아버지 때문에 가족 모두가 올 형편이 아니어서 나만 우선 이모네로 유학을 오게 된 것인데 그 집은 지금 '마전터'라는 음심점으로 바뀌어 있다. 거기서 나의 두렵고도 낯 설은 서울 생활이 시작되었다.

그 집은 언덕에 축대를 쌓아 도로 아래로 지어서 앞으로 성북초등학교가 바라보이고 집 뒤의 길 건너편에는 보성고등학교(지금은 서울과학고등학교로 바뀌었다.) 후문이 있었으며 옆으로 경신고등학교를 마주 보고 있었다. 그 길이 바로 한양도성을 쌓은 자리이며 경신

고등학교와 보성고등학교는 성터를 깔고 앉아 있었다. 그 뒤 도로 옆에 판자로 지은 만화방이 있었다. 지금 그 자리는 식당으로 바뀌었다. 아, 그 추억의 장소! 시골에서 올라온 터라 친구가 없었던 나는 그 만화방을 무시로 드나들었다. 용돈이라고 받은 돈을 아끼고 아껴 만화를 보는 데 투자하였다. 당시 만화는 우울한 내 삶의 탈출구였다.

강원도 광산촌에서 왔기 때문에 감히 혜화초등학교 같은 일류학교(!)에는 전학서류를 내지도 못하고 간송미술관 옆에 있는 성북초등학교로 전학했다. 내 기억으로는 5학년 2반이었던 것 같다.

당시는 중학교 시험이 있을 때여서 초등학교 교육은 입시체제로 운영되어 매일 시험을 보았다. 국어, 산수, 사회, 자연, 예체능 순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시험을 본 다음 그 결과를 가지고 성적순으로 주마다 자리배정을 하는 것이었다. 제일 앞자리는 당연히 반에서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차지하고 뒤로 갈수록 성적이 떨어지는 학생들이 배치되었다. 어린 아이들에게 극한 경쟁을 시키는 참으로 잔인한 처사였다.

나는 강원도 광산촌에서 공부를 제대로 한 적이 없고 더군다나 음악 미술은 배워본 바도 없었다. 시험을 보니 아는 게 별로 없어 당연히 뒷자리에 앉게 되었는데 어린 나이에 느끼는 모멸감은 대단했다. 당시 그 학교 교사였던 이모는 내 성적을 알고 나서는 당장 짐 싸서 강원도로 내려가라고 난리였고, 반 아이들은 촌스럽고 어눌한 강원도 사투리가 신기한지 국어 시간이면 나에게 책을 읽게 했다. 유년시절의 아름다운 추억은 다 사라지고 모멸의 시간만이 지속되었다. 나는 강원도로 내려가 아이들과 같이 산을 돌아다니며 산토끼를 잡고 개울에서 물고기를 잡는 꿈을 자주 꾸곤 했다. 낯설고 버거운 서울 생활에

지쳐 내 삶이 고통스럽다고 느끼기 시작했다. 어머니가 보고 싶어서 남몰래 눈물을 흘린 적도 많았다.

이 삭막한 서울 생활에서 나를 위로한 건 그 반에서 제일 키가 크고 다리를 저는 최준훈(지금은 고인이 되었다.)이라는 친구였다. 키가 크기에 할 수 없이 뒤에 앉아있었는데 내가 성적이 안 좋아 뒤에 앉게 되어 자연스럽게 친구가 되었다. 그도 소아마비 장애를 가지고 있어 나와 쉽게 어울릴 수 있었나 보다. 둘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낙이 영화를 보는 것이었다. 우리는 시험이 끝난 금요일이나 토요일에 같이 영화를 보곤 했다. 현재 성북초등학교 앞에 전차 정류장이 있었는데 거기서 전차를 타고 명륜동의 명륜극장이나 삼선교에 있는 동도극장에 가곤했다. 그 추억의 전차는 1~2년 뒤에 사라지게 됐는데 돈암동 태극당 앞에 전차 종점이 있어 그곳까지 전차를 타고 가보기도 했다. 왕우가 주연한 〈의리의 사나이 외팔이〉 같은 홍콩 무술영화나 〈장고〉와 같은 마카로니 웨스턴 등의 영화를 좋아해서 많이 보곤 했다. 일주일 동안 담벼락에 붙은 영화 포스터들을 보고 볼 영화를 선정한 다음 한 주일 내내 절약한 용돈을 과감하게 투자했다. 거기서 삭막한 서울 생활의 위안을 얻곤 했다.

2

어린 나이에 입시의 멍에에서 신음하던 시기도 끝이 났다. 내가 6학년이던 1968년 서울에서 중학교 시험이 폐지된 것이었다. 죽어라고 공부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중학교 입학시험이 사라졌다. 7월 15일을 기해 중학교 입시 폐지가 발표되었기 때문에 '7.15해방'이라고 불렀다. 그 때부터는 그야말로 완전히 다른 삶이 전개되었다. 그 사이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제법 서울 생활에 적응을 해가던 터였다. 입시에 짓눌려 있다 거기서 해방 되니 주변의 풍경들이 달리 보이기

시작했다.

성북동은 산으로 둘러싸여 서울 같지 않은 곳인데다가 내가 살았던 강원도와도 닮은 구석이 있었다. 게다가 나중에야 알게 됐지만 문화적인 명소가 많이 산재해 있었다. 우리의 놀이터는 간송미술관(澗松美術館)과 전형필 선생의 집인 북단장(北壇莊)이었다. 학교와 바로 붙어 있기 때문에 무시로 드나들었는데 나중에야 그곳이 국보급 미술품을 보유한 그 유명한 간송미술관인 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가 드나들었을 땐 건물 앞에 너른 포도밭, 입구에 돌사자가 서 있어 이국적인 풍경을 연출하고 있었다. 학교 뒤로도 너른 동산이 있어 도토리를 주으러 자주 담장을 넘었는데 조회시간마다 늘 도토리 주으러 가지 말라고 당부하던 담임선생의 말이 기억난다. 무서운 개가 있으니 담을 넘어가면 큰일 난다고 했지만 개는 묶어 두었는지 보이지 않았다.

시인 백석(白石, 1912~1996))의 연인이었던 자야(子夜) 여사가 주인인 요정 대원각도 어린 시절에 신기한 곳이었다. 산기슭에 고색창연한 집들이 들어서 있고 잘 가꾸어진 정원에서는 밤마다 가야금과 장구 소리가 둥덩 둥덩 들리곤 했다. 당시 친구들과 같이 몰래 들어가 본 적이 있었는데 정말 우리가 접하지 못한 '비밀의 정원'이었다. 삼청각, 청운각과 더불어 당시 정치인과 재벌들이 주로 애용하는 곳으로 군사정권 시절 이른바 '요정정치'라는 말을 만들 정도로 성업 중에 있었다. 우리들은 나중에 커서 돈을 많이 벌면 여기 와서 같이 술 한 잔 하자고 다짐을 한 적도 있었다. 대원각은 어린 우리들에게는 동화 속에 등장하는 비밀의 장원이었고, 당대 최고의 핸섬 보이였던 시인 백석과 일등명기 자야의 애절한 사연이 스며있는 곳이라는 사실은 당시로서는 알 수가 없었다.

그 화려했던 대원각이 1995년 법정스님에게 헌납되어 1997년 길상사(吉祥寺)라는 절로 바뀌게 되었으니 정말로 '상전벽해(桑田碧海)'가 된 셈이다. 천 억대에 이르는 재산을 아무런 대가 없이 법정스님에게 헌납했고 법정스님도 처음엔 고사하다가 나중에 이를 받아들여 도량으로 개조한 것이다. 게다가 그 주인이었던 자야여사는 1999년 끝내 백석을 만나지 못한 채 84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길상헌에서 하룻밤을 묵은 뒤 그 다음 날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 한다. 그 유골은 유언대로 길상사의 뒤편 언덕에 뿌려졌으니 길상사에 가거든 이들 연인의 이루지 못한 인연이 저승에서 이뤄지도록 빌어보시라.

지금의 길상사 뒤편으로 소위 '도둑촌'이라 하여 한국에서 이름만 대면 다 알만한 부잣집들이 즐비했는데 무슨 성채와 같아서 어린 시절 호기심을 한껏 자극했다. 그 뒤 70년대 TV 드라마에 부잣집 하면 으레 성북동이 등장했던 것을 기억한다. 그보다는 그 뒤 산위에 여기 저기 박혀 있는 외국 대사관저들이 더 예쁘고 특이했다. 산을 배경으로 숲 속에 들어앉은 여러 나라의 대사관 저택들은 예쁘면서도 이국적이어서 그곳을 보려고 자주 돌아다니곤 했다. 나는 그때 내가 크면 이 아름다운 곳에 집을 짓고 살리라 다짐했다. 나이가 들면서 그것이 불가능한 꿈인 것을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래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3

중학교는 최초의 추첨 세대가 되어 삼선교에 위치한 삼선중학교로 배정받았다. 그 무렵 강원도 철암에 있던 우리 집이 이곳 성북동으로 이사 오게 되어 드디어 가족들이 모두 모이게 되었다. 처음 자리를 잡은 곳은 쌍다리 위의 서울 명수학교 근처였다. 채석장이 있었고 삼청터널은 없어서 시내로 나가는 길은 나 있지 않았다. 중학교 시절 읽은 시 중에 김광섭(金珖燮, 1905~1977)의 〈성북동 비둘기〉가 있었는데

우리가 시의 무대가 되는 곳에 산다고 좋아했다. "성북동 산에 번지가 새로 생기면서 / 본래 살던 성북동 비둘기만이 번지가 없어졌다."고 했던 바로 그곳에 둥지를 틀고 살게 된 것이다.

당시 우리 또래에게 가장 유행하던 것은 무협소설이었다. 지금 유명 작가인 김훈의 선친인 김광주가 쓴 〈정협지〉, 〈비호〉 등의 작품이 특히 인기가 있었는데 거기에 푹 빠져 나무로 만든 칼을 가지고 허물어진 성터에서 무협 주인공 흉내를 내며 시간을 보냈다. 당시는 쌍다리 위로 산기슭에 많은 집들이 있었고 그곳을 지나 성터로 올라가는 길이 있었는데 성터가 허물어진 채로 방치돼 아이들의 놀이터가 되었다. 집이 그곳에서 멀지 않아 학교가 파하면 친구들과 성터를 자주 찾아 놀곤 했다.

그곳을 올라가는 길에 한용운(韓龍雲, 1879~1944) 선생이 말년은 보낸 심우장(尋牛莊)이 있었는데 그곳의 의미를 안 것은 한참 뒤였다. 아무도 우리에게 그곳이 어떤 곳인지 가르쳐 주지 않았다. 그 흔한 안내판도 하나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고등학교 가서야 비로소 국어선생님의 말을 듣고 그곳에 만해 한용운 선생의 집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중학교 시절에는 그저 성터로 가기 위하여 그 앞을 무시로 지나 다녔을 뿐이었다.

아, 그리고 쌍다리 위로 길 옆에 이태준(李泰俊, 1904~?)의 생가인 수연산방(壽硯山房)이 있었는데 그곳은 대학원 가서야 알았다. 이태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었던 시절이어서 그곳은 그냥 오래 된 한옥이 남아있는 곳이라고만 기억했다. 대학원을 가서 국문학을 전공한 뒤에야 그곳이 1930년대 최고의 소설가 이태준의 집인 것을 알았다. 마침 거기서 가까운 성균관대학교에 다녔기에 대학원 시절 비오



는 날이면 성터를 넘어가 술과 차를 마시곤 했다.

이렇게 본다면 성북동의 산동네는 한용운과 이태준, 김광섭 그리고 자야의 애인이었던 백석까지 위대한 근대문학가의 집터와 작품으로 한국 근대문학사의 기억을 환기시키는 곳이다. 다른 지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문학지리적 유산을 가지고 있는 셈이다. 내가 지금도 성북동을 좋아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일본 동경의 신주쿠에 위치한 와세다 대학을 간 적이 있었다. 대학 앞의 작은 길을 가는데 그 길에 일본의 작가 나쓰메 소세키(夏目 金之助, 1867~1916)의 산책로라는 팻말이 붙어 있었다. 생가도 아니고 산책한 길까지 소중히 간직하는 그 자세가 놀랍기도 하고 부럽기도 했다. 그 정신을 이어받자는 의도일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성북동은 엄청난 근대 작가의 영혼을 보유한 셈이다.

그리고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같이 다닌 송동열이라는 친구가 있었다. 하루는 그 집에 놀러 갔더니 영어로 된 원서가 돌아다녔다. 호기심이 나서 이게 뭔가 친구에게 물어봤더니 그 아버지가 바로 서울대학교 영문과 교수이자 〈하여지향〉의 시인인 송욱(宋稶, 1925~1980)이었다. 그 송욱 선생이 동구여상 입구 복개천 근처에 살았다. 당시로서는 송욱이라는 시인은 들어 본 적이 없어 그냥 친구의 아버지일 뿐이었다. 오히려 미남인 친구의 형은 여학생들이 줄줄 따라 다녔는데 내가 가면 앉혀 놓고 여학생 사귀는 얘기를 해주었고 나와 친구는 신기해하며 열심히 들었다.

4

나는 초등학교 5학년에 전학 와서 중고등학교 시절 7~8년가량을

성북동에서 살았던 것 같다. 그 뒤에 집은 수유리 4.19탑 근처로 이사를 가게 되었지만 대학을 성북동 근처인 명륜동으로 다니게 되면서 늘 성북동에 가까이 있다고 여겼다. 게다가 대학원을 마치고 경신고등학교 교사로 9년 동안 근무하면서 다시 성북동으로 귀환하였다. 마침 본가도 성북동에 터전을 잡고 다시 오게 되면서 우리 집은 제 2의 성북동 생활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본다면 대략 20년 넘게 성북동에 살았던 셈이 된다. 서울에서 유일하게 유년시절과 청소년 시절을 보낸, 어린 시절의 기억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곳이 바로 성북동이다. 해서 성북동은 마음의 고향 같은 곳이다. 가게나 커피 집은 많이 생겼지만 동네가 거의 변하지 않은 곳도 성북동이다. 그곳을 지날 때면 늘 정겨움을 느낀다. 사람 사는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파리의 몽마르트 언덕은 산동네라서 오스망 남작이 주도한 도시정비의 칼날을 비켜가서 지금의 아늑하고 정겨운 모습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한다. 김광섭은 문명에 쫓겨 성북동 비둘기가 터전을 잃었다고 했지만 지금의 성북동은 개발의 광풍이 휩쓸고 지나간 삭막한 아파트촌이 아닌 사람냄새 가득한 정겨운 마을로 남아있다. 성북동 비둘기가 "성북동 주인에게 축복의 메시지나 전하듯" 그렇게 아름다운 동네로 남아 있는 것이다.

권순긍은 세명대학교 한국어문학과 교수다. 고전소설을 전공하였으며, 문학 평론가이기도 하다. 그는 성북동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으며, 그 기억이 자신의 삶에 가장 큰 자양분이었다고 생각한다. 지금도 성북동이라는 말에서 아득한 그리움을 느끼는 그는, 성북동을 떠나 살아도 성북동 사람임에 틀림없다.

인터뷰, 성북동에서 만난 사람

시간이 멈춰있는 문방구 할아버지

박진하

"마을은 사람입니다. 우리 성북동도 여러 사람이 모여 만든 마을이지요. 예전에는 어느 마을이든 그곳에 가면 인사를 드려할 어른들이 계셨지요. 오랜 세월을 사시면서 그 동네의 변화를 묵묵히 지켜보시던 그런 분들입니다. 그러다 역사가 되기도 하고 그 마을을 닮아 하나가 되신 분들입니다. 그 분들이 우리의 역사이고 성북동입니다."

우리 상가 라인에서 가장 큰 어른을 만나 보았습니다. 그 분은 한일문구의 주인(田萬植, 72세)이십니다. 이 문구점은 이 성북동이 태어날 때부터 존재했던 것처럼 그 모습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변화를 거부하고 옛 모습을 그대로 보존한 채 우리의 추억을 자극합니다. 어느 날인가 잔돈이 필요해서 문방구를 찾아 갔습니다. 그런데 꼬마 손님이 버티고 있어 다시 나왔다가 조금 지난 후에 다시 가니 아직 그 여자 꼬마 손님과 독대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기를 몇 번이나 하고서야 만나 뵐 수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여자 아이는 물건을 사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저금통에 모아진 동전을 지폐로 바꾸기 위해 온 것이었습니다. 동전을 세어 지폐로 환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은행으로 가라고 할 법도 하지만 그냥 그 아이가 동전을 다 세어 내주면 그걸 지폐로 바꾸어 주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성북동이 간직한 넉넉함이었습니다.





그저 인터뷰라기 보단 동네 어른과 한담을 나눈다는 생각으로 찾아갔습니다. 처음에는 손사래를 치시며 겸손해 하십니다. 몇 번을 거쳐 말씀 드린 후에야 말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고향은 어디시고 성북동에는 언제 오셨는지요?

고향은 지리산 자락을 베고 누운 경남 거창입니다. 초등학교까지 약 오리 떨어진 곳이었으니 시골이었지요. 학교 다니는 길이 멀었지만 그 당시에는 다들 그랬습니다.

아버님은 내 나이 불과 일곱 살 되던 해에 저 세상으로 가셔서 누나와 함께 어머님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 누이도 열여섯 되던 해에 시집을 가게 되어 어머니와 단둘이만 남게 되었지요. 결국에는 중학교를 마치고 서울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성북동에 단칸방을 얻어 어머니와 함께 지냈습니다.

외삼촌을 비롯하여 외가 식구가 있어 그러했겠지만 성북동이 좋았습니다. 당시는 서울에 있는 다른 마을과는 달리 조용했고 공기가 좋아 살기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세 번에 걸쳐 이사를 했지만 여전히 성북동을 벗어나 본 적이 없습니다.

문방구는 언제부터 시작하셨습니까?

처음 서울에 와서는 중앙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2학년까지 다니다가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아 그만두었지요. 그리고는 서울 역 뒤편에 있는 공장으로 출근했지요.

그러다 62년도에 군대를 가게 되었습니다. 전방부대에도 있었지만 주로 광주 포병학교에서 조교를 하며 보냈습니다. 제대를 하면서 성북동에서 사업을 시작했지요. 외삼촌과 동업으로 건재상을 차렸습니다.

지금 바로 저 앞에 있는 중앙 화단에 있던 건물이었지요. 2000년인가 도로확장 공사를 하면서 헐렸지만 그 당시에는 이 도로가 2차선이었으며 성북동천도 있었습니다. 즉 도로 옆에 상가가 있었고 그 뒤로 성북 천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건자재를 사용하는 건설업자들이 공사 초기에는 물건 값을 제때 주더니 마지막에는 자재 대금을 떼어먹고 가는 일이 많았지요. 당시 온돌 공사를 하거나 기와지붕을 바꾸는 공사가 많았으나 도저히 지속 할 수 없게 되었지요. 결국 5년 만에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문방구입니다. 그것이 69년인가 70년인가 확실치 않으나 사오십년이 되었지요. 당시 초등학교 다니던 아이들이 다 중년이 되었습니다.

당시의 성북천은 어떠했습니까?

삼선 교를 지나 성북동으로 들어서면 신선한 공기가 느껴졌었습니다. 겨울에는 차지만 맑은 느낌의 바람이, 더운 여름에는 시원한 공기가 불어옵니다. 좋았어요. 그런데 제대하고 다시 오니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시궁창 냄새도 나고 그랬습니다. 69년대 말인가 그 때 여자이셨는데 담양사람인가하는 구청장이 복개 공사를 시작했어요. 복개만 하고 당시 지금의 도로 한복판에 있던 상가는 그냥 그대로 두었습니다. 공사는 일 년 동안 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한동안 그런 상태로 있다가 진영 구청장 시절에 도로 확장공사를 하면서 상가가 헐렸습니다. 지금 도로 옆에 있는 일부 건물도 헐어내 이처럼 넓은 도로가 된 것입니다.

당시 문구점 손님은 많아나요?

주로 파시던 물품으로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지금은 성북 초등학교 학급 수가 학년 당 3반 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한 반의 학생수가 30명 정도 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학년 당 학급수가 일곱이었습니다. 그것도 한 반당 학생수가 60명 정도로 2부제까지 있었으니 대단했지요. 지금은 문방구가 세 개 정도 남아있습니다만 그 때는 열여섯 개나 있었어요. 많이도 벌었지만 병원비로 많이 나갔습니다. 사십대부터 허리 디스크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침술로 고친다고 서울 시내 안 가본 데가 없습니다. 서대문에서 홍은동으로, 쌍문동에 있는 침술 원까지 다 가 보았습니다. 한 시간 반 씩 기다렸다가 치료 받곤 했는데 다 허사였습니다. 야매로 하던 그런 시설이었는데 병만 키우는 꼴이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고려대병원에서 수술을 해서 고쳤습니다만 지금도 걸음이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 문방구에서 일을 해서 아이 2명을 대학에 보냈고 조그마한 집이라고 살 수 있었으니 감사한 일이지요.

당시에 주로 팔리던 물건은 학용품이었어요. 그리고 장난감도 많이 사가지고 갔습니다. 그리 비싸지도 않은 것들이었습니다. 팽이, 구슬, 딱지, 밑그림이 그려져 있어 색칠 공부를 할 수 것들, 인형 등이 있었지요. 구슬은 큰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작은 것들, 유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쇠로 만들어진 것들도 있었어요. 지금은 사라진 것들입니다.

당시에 기억날 만한 에피소드는?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은?

그 때는 다 어려운 시기이었지요? 지금은 그런 일이 없지만 당시는 네다섯 명이 떼로 몰려와 학용품이나 장난감을 슬쩍해서 뒤로 전달합니다. 심지어는 노골적으로 물건을 훔쳐 뛰어 도망가는 아이도 있었습니다. 다들 동네 사람들이라 어쩔 수 없었어요. 모른 척하거나 다음에는 그런 짓을 못하도록 야단만 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3년 전인가 어떤 40대 중년 남자가 수박 한 덩이 사서 왔습니다. 아마도 친척 집을 다녀왔다가 나를 보고는 반가워서 그리한 모양입니다. 어릴 때 지나치게 장난을 쳐 죄송하다는 것입니다.

건강이 허락되는 한 계속하고 싶어요. 달리 할 일도 없고 하니 그렇습니다.

이제까지 늘 그러하셨던 것처럼 그 넉넉한 웃음으로 우리 옆에서 지켜 봐주시길 바라고, 성북동에 어르신 같은 분들이 오래오래 함께 사시길 바랍니다.

–

박진하는 성북동 중간쯤에 자리잡은 식당 〈디미방〉의 주인장이고, 본지의 편집위원이다. 성북동이 좋아 다니던 직장 퇴직 후에 이곳에서 식당을 열었다는데, 본지 창간호에 〈우리 가게를 소개합니다〉 코너를 집필한 후 편집위원으로 함께하게 되었다. 요가와 명상에 관심이 많아 저서도 몇 권 내신 실력파다.

성북의 역사 문화유산

최 연

1. 동양의 자연관

동양에서는 세상 만물을 삼재(三才) 즉, 하늘(天)과, 땅(地)과, 사람(人)의 유기적(有機的) 관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때 맞춰 햇빛(火)과 비(水)와 바람(風)을 내려주고(天時), 땅(地)은 하늘이 내려준 기운(氣運)으로 자양분(滋養分)을 만들어 인간을 비롯한 땅에 기대어 사는 뭍 생명들의 삶을 이롭게 하고(地利), 하늘과 땅이 베푼 풍요로운 삶의 터전에서 인간은 함께 일하고, 나누고, 즐기며 화목하게(人和) 살아간다고 보았습니다.

인간이 함께 살아가는 삶의 터전으로서의 땅은 크게 보아 산(山)과 강(江)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두 산줄기 사이로 물길 하나 있고 두 물길 사이로 산줄기 하나 있듯이 산과 강은 영원히 함께 할 수밖에 없는 맞물린 역상관계(逆像關係)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칭할 때 산과 강을 합쳐 강산(江山), 또는 산천(山川)이라고 합니다.

"산은 물을 건너지 못하고 물은 산을 넘지 못한다"라는 『산경표(山經表)』의 명제에 따르면 산줄기는 물길의 울타리며 물길은 두 산줄기의 중심에 위치합니다.
두 산줄기가 만나는 곳에서 발원(發源)한 물길은 그 두 산줄기가 에워싼 곳으로만 흐르는데 이를 유역(流域)이라 하며 사람들은 이곳에서 산줄기에 기대고 물길에 안기어(背山臨水) 삶의 터전인 '마을(洞)'을 이루며 살아갑니다.

마을을 일컫는 동네(洞)를 달리 동천(洞天)이라고도 부르는데 이것은 사람들만이 좋은 곳에 모여 사는 것이 아니라 신선(神仙)들도 하늘에서 내려와 노닐던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동천(洞天)을 곳에 따라서는 동천(洞川)과 동문(洞門)으로도 표기 하고 있습니다.

한양도성 안에 다섯 곳의 유명한 동천이 있는데 인왕산(仁王山) 아래 옥류동천(玉流洞天), 북악(北岳) 서쪽에 백운동천(白雲洞天), 북악 동쪽에 삼청동천(三淸洞天), 낙산(駱山) 아래 쌍계동천(雙溪洞天), 목멱산(木覓山) 아래 청학동천(靑鶴洞天)입니다.

도성 밖에도 유명한 동천이 다섯 곳으로 모두 삼각산(三角山)의 산줄기에 기대고 있으며 북악의 북쪽에 백석동천(白石洞天), 보현봉(普賢峰) 아래 성북동천(城北洞天)과 정릉동천(貞陵洞天), 문수봉(文殊峰) 아래 홍제동천(弘濟洞天)과 불광동천(佛光洞天)입니다.
이중에 성북동천과 정릉동천이 성북구에 있습니다.

'마을'에서 볼 때 산줄기는 울타리며 경계(境界)이고 물길은 마당이며 중심(中心)이 됩니다.
산줄기는 마을의 안쪽과 바깥쪽을 나누고 물길은 마을 안의 이쪽저쪽

을 나눕니다.

산이 건너지 못하는 물길의 이쪽저쪽은 나루로 건너고 물이 넘지 못하는 산줄기의 안쪽과 바깥쪽은 고개로 넘습니다.
그래서 나루와 고개는 '마을 사람들'의 소통(疏通)의 장(場)인 동시에 새로운 세계로 향하는 희망(希望)의 통로(通路)이기도 합니다.

정릉동천은 도성의 북대문(北大門)인 숙정문(肅靖門)에서 동소문(東小門)인 혜화문(惠化門)에 이르는 좌청룡 산줄기와 구준봉(狗蹲峰)에서 미아리 고개로 이어지는 북악산 길(북악스카이웨이) 산줄기 사이를 흐르는 물줄기이며 정릉동천은 북악산 길 산줄기와 북한산성(北漢山城)의 보국문(輔國門)에서 이어지는 칼바위 능선 산줄기 사이를 흐르는 물줄기입니다.
그래서 두 동천을 나누는 구준봉에서 시작되는 북악산 길 산줄기는 성북구의 중심 영역으로 이 산줄기에 아리랑 고개와 미아리 고개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2. 성북구의 행정조건

한양(漢陽)은 도성(都城) 안은 물론이고 도성 밖 일정 부분까지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그 영향력을 미치는 영역을 도성 안은 5부로 나누고 도성 밖은 자내(字內), 성저십리(城底十里), 교(郊), 기(畿)로 나누었습니다.
자내(字內) 지역은 성벽에 붙어 있는 도성 밖 마을로 성북구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자내라는 용어는 도성을 쌓을 때 팔도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고을 단위로 책임제로 성을 쌓았기 때문에 자기구역이 어느 고을에서 올라온 사람들이며 책임자는 누구인가를 돌에 새겨 성벽에 끼워 넣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글씨가 새겨진 성이라고 그 성 주위를 자내라고 불렀습니다.
성저십리(城底十里)는 도성으로부터 십리거리의 지역으로 홍제, 도봉, 왕십리, 용산, 마포 송파 등이 해당되고 이곳은 도성 안에 필요한 생활필수품을 조달하는 역할들을 하였습니다.
이곳에서는 아무 작물이나 심을 수 없고 나라에서 지정한 작물을 심는데 주로 채소농사를 하였고 산에는 소나무를 심고 가꾸기를 장려하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그린벨트지역인 셈입니다.
교(郊)는 도성으로부터 백리까지의 거리로 양주, 파주, 양천, 과천, 광주 등이 해당되며 도성 주위를 에워싼 고을들로서 도성의 위성도시 역할을 했으며 서울교외(郊外)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기(畿)란 도성으로부터 오 백리까지의 거리로 지금으로 말하면 경기도(京畿道) 일대입니다.
경기(京畿)라는 명칭은 도성(京)로부터 오 백리(畿) 지역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념은 중국의 〈주례(周禮)〉에 따른 것인데 우리나라는 땅이 좁아 그대로 적용이 되지 못하고 기(畿)는 이 백리에서 삼 백리 정도의 어리이고 한양의 위치가 서쪽으로 치우쳐 있어 서쪽으로는 이 백리도 채 못 되는 거리입니다.

3. 성북구의 지형조건

백두대간(白頭大幹)이 그 산줄기를 남으로 뻗어 내려오다가 분수령

에서 갈라져 서쪽으로 한북정맥(漢北正脈)으로 이어지고 삼각산 영봉(靈峰)에서 남쪽으로 그 방향을 돌려 삼각산 즉 백운대, 인수봉, 만경대를 일구고 보현봉(普賢峰)에 이르러 동남향하면서 형제봉(兄弟峰)과 구준봉(狗蹲峰)을 지나 마침내 한양(漢陽)의 주산(主山) 북악(北岳)에 이르게 됩니다.
이러한 산줄기의 흐름을 풍수 지리적으로는 내룡(來龍)이라고 하는데 산의 기운(氣運)이 산줄기(龍)의 뻗침과 함께 전해져 온다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민족의 영산 백두산의 헌걸찬 정기(精氣)가 산줄기의 뻗음을 타고 한양의 주산인 북악에 와서 맺혀 그 기운을 한양 도읍에 불어넣어 준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형제봉에서 북악까지 이어지는 산줄기가 한양의 입수(入首) 목에 해당되는 보토현(補土峴)에서 잘룩져 병목현상을 일으키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였기에 나라에서는 세검정에 있었던 총융청(摠戎廳)에 보토처(補土處)를 설치하고 특별한 날을 잡아 백성들을 동원하여 잘룩진 곳에 흙을 퍼다 날라 메꿈으로서 산의 기운이 원활하게 이어져 전해지도록 하였는데 흙을 보충한 고개라는 의미로 이곳을 보토현(補土峴)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더욱 북돋워 주어야 할 보토현 아래에는 북악터널이라는 커다란 구멍을 뚫어 놓았으니 좋은 기운이 서울 장안까지 펼쳐지기는 이젠 글렀는가 봅니다.

북악의 동쪽으로 뻗어 있는 능선에 있는 숙정문 바깥 골짜기로부터 그 흐름이 시작되는 성북동천(城北洞天)은 도성 밖의 경치 좋은 곳으로 '자하문 밖'과 함께 으뜸으로 꼽히는 곳으로 이 일대를 북둔(北屯)이라고도 부릅니다.
도성 수비를 맡은 군대인 3군문(三軍門) 즉, 훈련도감(訓練都監), 금

위영(禁衛營), 어영청(御營廳) 중에서 어영청(御營廳)의 북쪽 창고(北倉)가 있었던 곳이라 북둔이라 불렀습니다.
북둔 일대는 복숭아나무가 많아서인지 홍도동, 도화동, 복사동이라 불렀는데 지금은 복숭아나무는 보이지 않고 그 명칭이나마 동명(洞名)으로 남아 전해지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한양 사람들은 인왕산(仁王山)의 살구꽃, 서대문 밖 서지(西池)의 연꽃, 동대문 밖 동지(東池)의 수양버들, 세검정 근처 탕춘대(蕩春臺)의 수석(水石) 그리고 성북동의 복숭아꽃(北屯桃花) 구경을 으뜸으로 꼽았습니다.
아쉽게도 서지의 연꽃과 동지의 버드나무 그리고 탕춘대의 수석은 그 자취를 다시 볼 수 없을 정도로 메꾸어지고 복개되어 원형 복원이 어렵게 되었습니다만 인왕산과 북둔 일대는 지금도 찾는 이들이 많이 있으니 이곳에다 살구나무와 복숭아나무를 많이 심는 것을 지자체에서는 정책적으로 시행하여 옛 정취를 살려보려는 노력을 하였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4. 성북구의 역사 문화유산

한양도성(漢陽都城) 중 북대문인 숙정문(肅靖門)과 동소문인 혜화문(惠化門)이 성북구와 인접해 있습니다.
숙정문은 너무 높은 곳에 위치해 있어 백성들이 드나들기 어려워 거의 사용하지 않아 문을 닫아 두었으나 혜화문은 북방의 여진족(女眞族)이 조선에 사신(使臣)이 올 때 이문을 통해 도성에 들어와 여진족이 머무는 숙소인 북평관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혜화문은 함경도로 통하는 길목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군사독재 시절에 삼청각(三淸閣)과 대원각(大苑閣)은 권력자와 기업총수들이 서로 만나 정경유착(政經癒着)의 야합(野合)을 하던 요정(料亭)으로 이 두 곳이 모두 성북동천 상류에 자리 잡고 있는데 이는 성북동천이 권력의 중심인 청와대와 가깝고 그만큼 풍광이 수려하다는 반증일 것입니다.
삼청각은 서울시가 운영하는 음식점과 예식장으로 바뀌었고 대원각은 주인이 법정(法頂)스님에게 기부하여 지금은 길상사(吉祥寺)라는 멋진 도심 속의 사찰로 바뀌었습니다.
대원각의 소유주였던 김영한(1916-1999)씨는 16살 때 조선권번(朝鮮券番)에서 궁중아악(宮中雅樂)과 춤과 노래를 가르친 금하 하규일의 문하에 들어가 진향이라는 이름의 기생이 되었고 그 이후 월북시인 백석(白石)(1912-1995)과 사랑에 빠져 백석으로부터 자야(子夜)라는 아명(雅名)까지 받았으며 1953년에 중앙대 영문과를 졸업했으며 '백석, 내 가슴속에 지워지지 않는 이름', '내 사랑 백석' 등의 책을 내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무소유' 라는 책을 통하여 법정 스님을 알게 되고 대원각을 법정 스님에게 기증하고 법정 스님으로부터 길상화(吉祥華)라는 법명(法名)을 받았는데 이런 연유로 길상사라고 절 이름을 지었습니다.
파란만장한 삶을 살다가 가진 것을 모두 보시하고 몸은 화장하여 길상사 뒤편 언덕에 산골(散骨)하였으니 그야말로 정신적인 스승인 법정스님의 가르침인 '무소유'를 철저히 실천한 것 같습니다.

성북동천 하류에 있는 성락원(城樂園)은 철종 때 이조판서를 지낸 심상응(沈相應)의 별장이었으며 의친왕 이강(李堈)이 별궁으로 사용하던 곳이기도 합니다.
성락원은 자연적 지형을 잘 이용한 별장으로 생활(生活), 수학(修學), 수양(修養)의 기능을 하는 앞뜰과 후원(後園)의 역할을 하는 뒤뜰로

구성되어 있으며 추사 김정희의 글씨를 비롯한 행서체(行書體)의 좋은 글씨가 바위에 많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지금은 사유지로서 일반인의 관람이 불가능하여 전해지고 있는 낡은 사진으로만 그 일면을 엿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조선총독부가 보기 싫다고 북향(北向)을 한 독립지사 만해(萬海) 한용운(韓龍雲)이 말년을 보낸 심우장(尋牛莊)이 조촐하나마 의기(義氣)가 서린 아담한 모습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만해는 결국 해방된 조국을 보지 못하고 광복 1년 전에 죽어 지금은 망우리 독립열사 묘역에 부인과 나란히 잠들어 있습니다.
심우장에 걸려 있는 오도송(惡道頌)은 거침없는 만해의 기질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아도처시고향(男兒到處是故鄕)
장부는 가는 곳마다 고향이거늘
기인장재객수중(幾人長在客愁中)
사람들은 시름속의 나그네로 오래도록 보내네
일성갈파삼천계(一聲喝破三千界)
한소리 큰 할로 삼천 대천세계를 깨뜨리니
설리도화편편비(雪裏桃花片片飛)
눈 속 복사 꽃잎이 펄펄 날리네

그리고 성북동천이 한양도성의 바깥쪽을 휘감고 돌아가는 곳에서 선잠단지(先蠶壇址)를 만날 수 있습니다.
선잠단지는 누에의 먹이인 뽕나무를 많이 생산하기 위해 잠신(蠶神)인 서릉씨(西陵氏)를 배향하고 제사를 지내던 곳으로 왕비(王妃)가 친히 행차하여 양잠(養蠶)의 시범을 보여주던 곳이기도 합니다.
조선시대에는 풍요로운 먹을거리(食)와 입을거리(衣)를 얻기 위해

백성들에게 농사(農事)와 양잠(養蠶)을 권장하는 행사를 왕과 왕비가 직접 나서서 모범을 보였습니다.
왕은 전농동에 있는 선농단(先農壇)에서 농사짓는 시범을 보이는 친경행사(親耕行事)를, 왕비는 성북동천 아래에 있는 선잠단(先蠶壇)에서 누에치는 시범을 보이는 친잠행사(親蠶行事)를 주관하였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서 백성들의 노동력이 늘어날 것이고 늘어난 노동력만큼 생산도 많아져 백성들의 먹을거리와 입을거리를 풍요롭게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성북동천 하류에 있는 간송(澗松) 전형필(全鎣弼)선생이 전 재산을 투척하여 건립한 간송미술관과 월북 작가 상허(尙虛) 이태준(李泰俊) 고택 등도 둘러보면 좋은 곳입니다.
간송 전형필 선생은 종로에서 아흔 아홉 칸의 대부호의 집에서 태어나 휘문고와 일본 와세다 대학을 졸업하고 일본강점기에 일본에 의해 문화재가 반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재를 털어 미술품과 문화재의 수집과 보존에 평생을 바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1938년 한국 최초의 사립박물관인 보화각(葆華閣)을 설립하여 서화(書畵)뿐만 아니라 석탑, 석불, 탱화 등의 문화재를 수집 보존하는데 힘썼습니다.
1966년 보화각을 그의 호를 따서 간송미술관으로 개명하고 지금에 이르고 있는데 이곳은 문화재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매년 5월과 10월 두 차례만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간송미술관에 보관된 문화재는 국보 70호인 훈민정음(訓民正音) 원본(原本)을 비롯한 국보 12점, 보물 10점, 서울시 지정문화재 4점 그리고 겸재(謙齋) 정선(鄭善), 추사(秋史) 김정희(金正喜), 단원(檀園) 김홍도(金弘道)의 작품 등 5천여 점이 소장 되어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복개되어 자동차 도로로 변했지만 예전에는 복숭아꽃이 만발하였던 성북동천에 기대고 있는 마을들은 물줄기를 경계로 해서 남쪽과 북쪽이 매우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양도성 밖 북쪽 성벽에 기대고 북향을 하고 사는 남쪽마을은 서민들의 삶이 물씬 풍기는 6, 70년대의 풍경이 고스란히 남아 있고 구준봉(狗蹲峰) 아래 양지바른 언덕에 둥지를 틀고 남향을 하고 사는 북쪽마을은 재벌 회장들의 대저택이 들어섰었는데 그 재벌들이 목멱산(木覓山) 남쪽 기슭인 이태원으로 옮겨감에 따라 지금은 외국대사(外國大使)들의 저택으로 바뀌었고 그래서 가까운 곳에 외국대사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위한 외교 타운도 세워져 있습니다.
70년대 당시 소위 '도둑촌'이라 불렸던 이곳에 재벌 회장집들이 들어설 때 현지 주민들의 내몰리는 모습을 비둘기에 빗대어 노래한 김광섭 시인의 '성북동 비둘기'는 그때의 광경을 잘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최근에는 뉴타운 개발로 쫓겨나는 서민들의 신산스런 삶으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성북동 산에 번지(番地)가 새로 생기면
본래 살던 성북동 비둘기만이 번지가 없어졌다.
새벽부터 돌 깨는 산울림에 떨다가
가슴에 금이 갔다.

- 중략 -

사랑과 평화의 새 비둘기는
이제 산도 잃고 사람도 잃고
사랑과 평화의 사상까지
낳지 못하는 쫓기는 새가 되었다.

정릉은 태조 이성계의 계비(繼妃)이자 조선왕조의 최초의 왕비였던 신덕왕후(神德王后) 강씨의 능으로 본래 경운궁(慶運宮) 서쪽 지금의 주한 미국대사관저 뒤편 근처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지금도 그때의 석물(石物) 일부가 그곳에 남아 있습니다.
태조의 신덕왕후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깊었으면 그의 묘를 사대문 안에 두고 그 동쪽에 명복을 빌기 위한 원찰(願刹)인 흥천사(興天寺)를 지금의 서울시 의회(과거 국회의사당) 쯤에 170여 칸 규모로 지었습니다.
그러나 왕자의 난을 일으켜 신덕왕후의 소생들과 삼봉(三峰) 정도전(鄭道傳) 등 개국공신들을 참살(慘殺)하고 왕위에 오른 태종(太宗) 이방원(李芳遠)이 분묘(墳墓)는 지금의 이곳 정릉으로 이장시키고 정자각(丁字閣)은 헐어버려 그 목재와 석재를 가까이에 있는 중국 사신이 머무는 북평관(北平館)의 북루(北樓)를 짓는데 썼고 신장상(神將像)이 새겨진 병풍석(屛風石)은 홍수로 떠내려간 광통교(廣通橋)를 돌다리로 다시 놓는데 쓰게 하였습니다.
그 병풍석은 청계천(淸溪川)이 복개(覆蓋)되면서 지하에 묻혀 있다가 청계천 복원공사로 훤히 그 모습을 드러내 지금은 청계천 광통교(廣通橋) 밑에 가면 언제라도 볼 수가 있습니다.

큰 규모로 지어진 흥천사도 정릉의 이전에 따라 아리랑 고개 초입에 작은 규모로 옮겨져 '새로 지은 작은 흥천사'라는 뜻으로 신흥사(新興寺)라 부르면서 주변의 회갑잔치를 하는 많은 음식점 때문에 유명해졌다가 최근에 본래의 이름인 흥천사를 되찾았습니다.
아리랑 고개는 정릉으로 가기 위해서는 넘어야만 하는 고개이기에 본래 정릉고개로 불렸는데 일제 강점기에 항일의 내용을 담은 영화인 나운규(羅雲奎) 감독의 아리랑을 이곳에서 촬영함으로서 그때부터 아리랑 고개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미아리 고개는 인왕산과 안산 사이에 나 있는 무악재와 함께 한양 도성을 나와 북으로 향할 때 넘는 고개로서 무악재는 조선이 사대(事大)하던 중국으로 통하는 길이고 미아리 고개는 조선이 오랑캐라 칭했던 여진족(女眞族)이 드나들던 고개였습니다.
그래서 달리 되너미 고개라 불렀고 한자로는 적유현(狄踰峴) 또는 호유현(胡踰峴)이라 표기했습니다.

최연은 프레시안 서울학교 교장이다. 서울의 역사와 문화유산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이야기를 들려주는 서울 전문가다. 이 글은 지난 호 〈한양도성〉에 이어지는 성북구의 문화유산 이야기 2편이다. 성북구의 행사에 자료로 주신 글을 수록한 것이다.


故 전형필 선생이 1938년에 설립한
한국 최초의 근대식 사립 미술관 으로
우리나라 최고의 고서화 소장 미술관
간송미술관



우리동네 문화재

우리 마을의 자랑거리, 간송미술관

오예주

"문화재는 민족의 혼이다."

간송미술관은 성북동에 위치한 대한민국 최초의 사립미술관으로 수많은 국보급 문화재를 지켜낸 간송 전형필의 호를 딴 미술관이다. 한국의 국보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미술관 중의 하나로 한글 창제의 과학적 원리를 담고 있는 국보 70호 훈민정음, 고려 청자의 백미로 꼽히는 국보 68호 고려청자상감운학문매병, 조선 후기 대표 풍속 인물화를 담고 있는 혜원 전신첩, 조선 최대의 서예가인 추사 김정희의 글씨 등은 전형필이 없었다면 만나지 못했을 것이다.

전형필, 그의 인생은 오세창 선생을 만난 뒤 바뀌기 시작했다. 그는 민족대표 33인 중 한 사람이자, 당대 최고의 서예가였던 오세창 선생으로부터 문화재 보는 안목과 지식을 배웠다. 그 후 문화재는 민족의 혼이며,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민족 문화 유산의 보호임을 깨닫고 자신의 전 재산을 바쳐 일본으로 유출되는 우리 문화유산을 사들이기 위해 1932년 서울 관훈동의 한남서림을 인수래 문화재들을 사 모으기 시작했다.

1934년 서울 성북동에 북단장(北壇莊)을 설립, 본격적으로 문화재

를 수집하고 그가 33세가 되던 1938년에는 자신의 소장품으로 북단장 안에 한국 최초의 사립박물관인 보화각(保華閣)-나라의 빛나는 보물을 모아둔 집-을 세웠고, 이것이 확대되어 1966년에 간송미술관이 되었다.
이 보물들은 우리들로 하여금 망각의 늪으로부터 기억을 소생시켜 우리가 누구인지 깨워 주며, 정신성을 회복시켜주는 매개체이다.

간송 전형필 소개

전형필(全鎣弼1906-1962)
본관은 정선(廷善). 자는 천뢰(天賚), 호는 간송(澗松)·지산(芝山)·취설재(翠雪齋). 휘문고등보통학교를 나와 일본 와세다대학[早稻田大學] 법학과를 졸업한 이후 일제강점기였던 당시 일본에 의해 문화재가 반출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오세창·고희동·김돈희·안종원·김용진·이도영·이상범·노수현 등과 함께 미술품과 문화재의 수집·보존을 위해 평생을 바쳤다. 특히 오세창의 고서화에 대한 감식안에 힘입어 1932년경 한남서림(翰南書林)을 인수하여 고서화와 골동품을 수집했다. 1934년 성북동에 북단장(北壇莊)을 개설하여 본격적으로 서화작품과 조선자기·고려청자 등 골동품과 문화재를 수집하는 한편, 1938년 한국 최초의 사립박물관인 보화각(葆華閣)을 북단장 내에 개설하여 서화뿐만 아니라 석탑·석불·불도 등의 문화재를 수집·보존하는 데 힘썼다. 그의 수장품은 대부분 국보 및 보물급의 문화재로 김정희·정선·신윤복·심사정·김홍도·장승업 등의 회화작품과 서예 및 자기류·불상·석불·서적에 이르기까지 한국미술사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1940년대에는 보성고등보통학교를 인수하여 육영사업에 힘썼고, 8·15해방 후 문화재보존위원으로 고적 보존에 주력했으며 1960년 김상기·김원룡·최순우·진홍섭·황수영 등과 함께 고고미술동인회를 결성하고 동인지 〈고고미술 考古美術〉 발간에 참여했다. 1962년 대한민국문화훈장이 추서되었다. 1966년 보화각은 간송미술관으로 개칭되었으며, 북단장에는 한국민족미술연구소가 설립되어 미술사를 연구하고 있다. (브리태니커 백과사전에서 인용)

올 간송 전시회는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열려

"문화로 나라를 지키다"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는 한국의 미를 지킨 대수장가 간송의 삶과 우리문화재 수집품 전시회가 진행 중이다.
지금 간송미술관의 건물은 한국 최초의 근대 건축물로서 지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대규모의 전시를 소화해내기에는 벅찬 감이 있다. 그리하여 2014년 3월부터는 재단설립을 기념하여 세계적 건축가 자하 하디드가 설계한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에서 전시회를 시작하게 되었다.

전시 일정
1부 : 간송 전형필. 2014. 3. 21 - 6. 15
2부 : 보화각. 2014. 7. 2 - 9 .28
장소 :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1부에서는 간송의 삶과 그의 민족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행적을 통해, 우리 문화재를 사랑하고 보호하여 후세에게 우리 민족의 문화적 우수성을 자긍심으로 전달하려 했던 간송의 정신을 재조명한다.
2부에서는 간송이 모은 우리 민족문화재의 우수성과 아름다움을 보여 줌으로서 외국인들에게 우리 민족문화재의 높은 수준을 알리고,

우리 국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일깨운다.
이번 전시에는 국보급 문화재인 훈민정음 해례본(국보 70호), 금동삼존불감(국보 73호), 청자상감운학문매병(국보 68호), 백자청화철 채동채초충난국문병(국보 294호), 혜원 신윤복, 단원 김홍도, 추사 김정희 서화 등 132여점이 공개되고 있다.

–

오예주는 성북동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다. 오래전부터 사람들과 함께 성북동을 공부하는 모임을 했으며, 지금은 본지 편집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지금은 다른 동네에 살고 있지만, 성북동에 터 잡고 살아가는 꿈을 갖고 있다.

간송미술관을 세운 전형필〈만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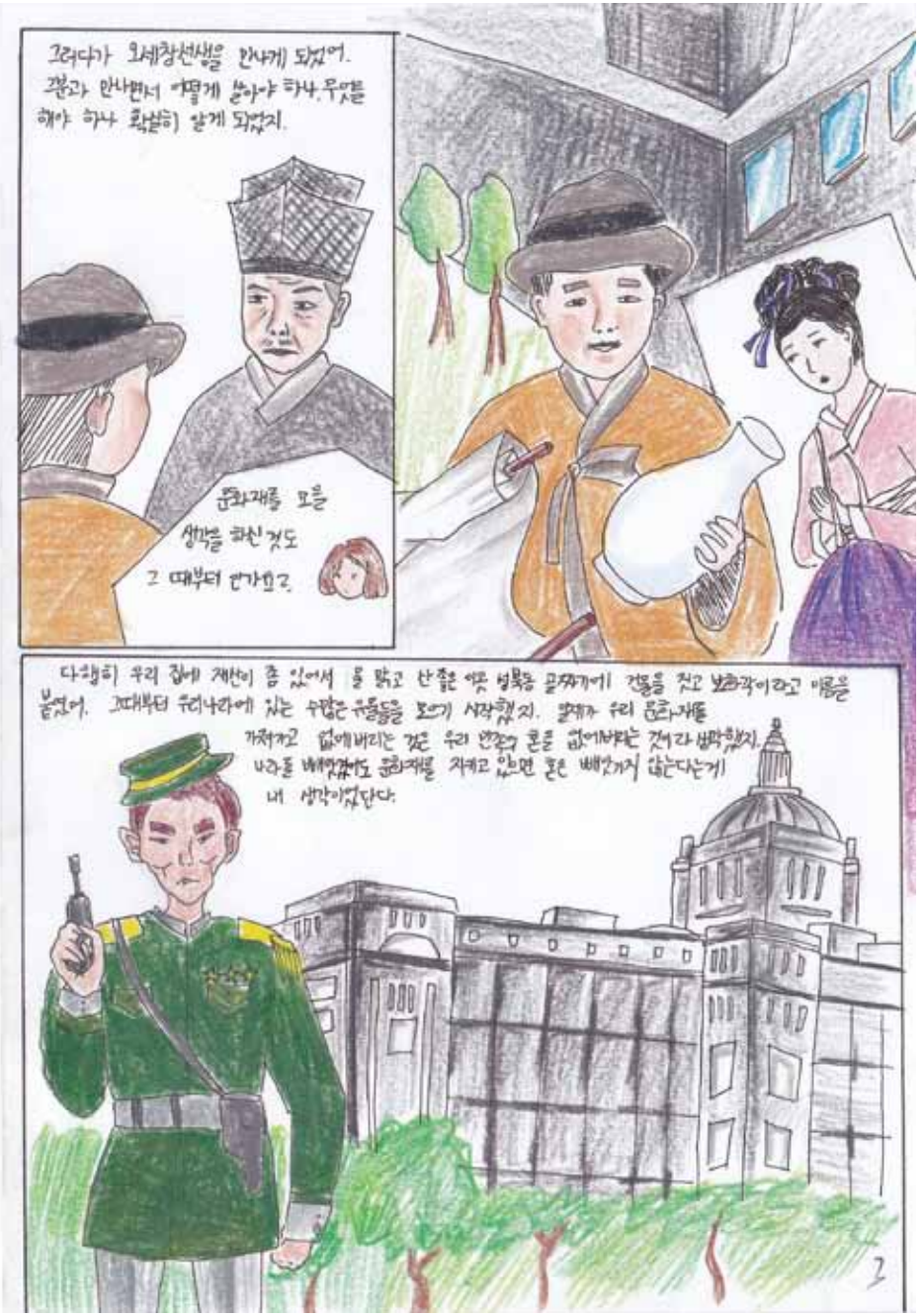
–

최진형(글쓴이)는 성북동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살고 있다. 지금은 경동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중이며, 장래 역사 공부, 특히 동아시아사를 전공하는 것이 꿈인 학생이다.

안시은(그린이)는 성북동에서 태어난 토박이로 현재 이화여대 병설미디어 고등학교 2학년이다. 미술을 전공하고 있으며, 장래 화가가 되는 것이 꿈인 학생이다.
이 책 표지3의 압축화도 이 학생의 그림이다.




왜?
아는 분이야?
네에?
전형필 선생님이요?
정말이세요?
그래. 놀랄만도 하지.
내가 바로 이 보화각(간송미술관)을 지은 전형필이란다.
말도 안돼.
전형필 선생님은 그래전에 돌아가셨잖아요.
네티들이 집해서 어렵게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일부러 왔지.
자 그럼 술을 얘기를 해 볼까?
내가 태어난 곳은 종로 4가란다. 어려서는 행복하게 살았는데, 갑자기 할아버지와 형이 돌아가셨지.


그러다가 오세창선생을 만나게 되었어. 그분과 만나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 무엇을 해야 하나 확실히 알게 되었지.
문화재를 모은 생각을 하신 것도 그 때부터 인가요?
다행히 우리 집에 재산이 좀 있어서 돈을 많고 난 후로 어떤 일본을 골짜기에 전돌을 치고 보화각이라고 이름을 붙였어. 그때부터 우리나라에 있는 우리문화재들을 모으기 시작했지. 왜냐하면 우리 문화재를 가져가고 없애버리는 것은 우리 민족의 혼을 없애버리는 것이라 생각했지. 나라를 빼앗겼어도 문화재를 지키고 있으면 혼은 빼앗기지 않는다는게 내 생각이었단다.


한번은 국문학자인 이대원 선생이 자기 제자가 '훈민정음 해례본'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나는 직접 찾아가 진본여부를 확인하고 만 천원을 주고 구입하기로 했어.
유야? 만 천원이라니?
감이 안 오는데?
배신인가?
그 당시 책 한 권이 쌀 10말이었지. 만 천 원이면 아마 집을 수 십 채 살 수 있었을 거야.
그 어려운 시기에 사재를 들여 문화재를 모으고 보관한다는 것은 정말 공짜관리군!
또 한번은 영국 귀족이 가지고 있는 문화재를 다 처분한다고 해서 가보니 돈을 쿠보급 고려청자였어. 있는 돈을 다 털어 그 청자를 사오리라지.
정말 아저씨는 대단한 분이셔요.
그렇게 모은 문화재들이 지금 전부 간송 미술관에 있는 건가요?
그렇지. 자손 대대로 우리 민족의 혼과 기개를 알려주기 위해 보존하는 곳이 간송 미술관이란다.
6.25때는 백척간두에 있는 것 같았지.
전쟁 중이지만 그 많은 문화재를 두고 갈 수가 없어서 날마다 지키고 있었단다.
나는 들 수 있는 것은 들고 피란을 했고, 당시 미술관을 지키던 최순우 선생이 남아서 온갖 고생을 해가며 문화재를 지켰지. 북한군이 문화재를 가져가려고 하는 것도 가져다가 파괴되면 민족적인 손실이라고 핑계를 대고 설득을 해서 무사히 지킬 수 있었단다.


괜찮다. 지금이라도 문화재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되니까.
여기부터 1분간
대단하시네요.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만큼 소중한 문화재라니... 사실 봄 가을 전시회 때 사람들이 줄 서서 기다리는 것은 많이 봤는데, 전 관심없이 차쳤거든요. 죄송해요.
저는 엄마 아빠 따라 몇 번 과 봤어요. 단한 감동도 전혀 체험 반문복천 할 때요.
그래. 너희처럼 문화를 아끼고 사랑하는 아이들이 있어 나도 행복하구나. 그럼 나는 이만 가야겠다.
천천히 미술관 둘러보고 가고 그러구나.
우리 동네에 이렇게 유명한 미술관이 있다는게 자랑스러워요.
몇아. 부자동네라고 불려지는 것 보다 소중한 문화재가 있는 동네가 더 좋은 것 같아.
이제 겨레의 간송미술관과 성북동은 너희들의 몫이다. 역사를 올바로 알고, 느끼고, 보존하고, 가꾸는 일이야말로 천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귀한 것이란다.

〈성북동 마을 기행〉 참가기

골목이 있는 마을, 사람이 사는 동네, 성북동

강서희

성북동을 탐방한다는 모임이 소셜다이닝 사이트 집밥에 올라왔다. 성북동하면 예쁜 카페, 공방, 성북동 비둘기, 고급 빌라 등등이 떠올랐다. 모임 설명에 성북동 골목을 탐방한다고 되어 있었다. 성북동 골목! 골목이라는 말만 들어도 특별하게 느껴졌다. 평소 큰 길을 따라 올라다니며 몇 몇 음식점과 커피숍을 방문해 봤었다. 그다지 특별한 경험은 아니었다. 나는 여기저기 숨어있을 예쁜 카페와, 공방이 떠올랐다. 다른 곳에서 발견하지 못한 아기자기한 소품 샵에서 액세서리를 하나씩 사들고 나오는 모습도 머리에 그려졌다. 갈까 말까 한참을 고민했다. 성북동은 평소에도 자주 갈만한 곳인데 나 혼자 돌면 되지 않을까? 탐방 전날 저녁까지도 고민했다. 결국 나 스스로는 어렵게 결정하고 탐방에 참여했다.

토요일 오후 4시, 한성대입구역 6번 출구에 하나 둘씩 사람들이 모였다. 어색하게 인사를 나눈 사람들은 빨간 꽃을 든 성북동천 김기민 씨를 따라 성북동 탐방을 시작했다. 대안공간 11717 앞을 지나 성북로8나길로 접어들었다. 큰길과 분위기가 달라졌다. 번듯한 간판이 제법 많은 성북동 큰 길과 달리 골목에는 간판이 없었다. 이미 색도 많이 바랜 건물들이 많았다. 낮은 빌라들 사이로 한옥들도 섞여 있었다. 변화하는 것과 변화하지 않는 것들이 뒤섞여 있는 모습이 보기 좋

았다. 그냥 그대로 자연스러웠다. 누군가는 새로운 집에서 살고 싶고, 어떤 사람들은 지키고 싶었던 것일 뿐이다. 사람들이 이내 골목은 가팔라졌다. 비탈을 힘겹게 올라가려니 땀이 솟았다. 여기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매일 오르락내리락 하시는 건지 나는 이내 궁금해졌다. 슬레이트 지붕은 옆집과 닿을 듯 가까웠다. 이러면 이웃이 안 생길래야 안생길수가 없겠다 싶어 웃음이 났다. 외로운 서울 생활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이웃이었다. 좁은 원룸들은 서로의 사생활은 지켜주지만 사람의 정이 그리운 마음을 달래주긴 힘들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내 옆집에 왔다 윗집에 왔다 떠나갔다. 정착하지 못하는 도시가 서울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직도 옹기종기 모인 동네가 살아있다는 느낌이었다.

가파른 길을 따라 올라가다가, 내려가며 길을 걷다보니 성북동이 흥미로워지고, 궁금해졌다. 지금 내가 사는 대단지 아파트가 있는 공간은 아무리 걸어도 궁금하지 않았다. 아무리 걷고 여러 골목을 지나쳐도 직각 반듯한 길들은 비슷비슷한 거리였다. 다르기도 힘든, 뻔한 공간이었다. 성북동 골목은 다음에 어떤 길이 펼쳐질지 예상이 되지 않는 곳이었다. 좁은 길을 걷다보면 큰 길이 나오고 다시 좁은 골목에서 갑자기 비탈을 타고 올라가야했다. 다음 길이 궁금해지니 사람들이 어떻게 이 성북동에서 살고 있는지도 궁금해졌다. 내가 신기하게만 보이는 이 거리에서 어떤 사람들이 살까, 눈이 오면 어떻게 이 길을 다닐까 궁금해졌다. 사람들이 사는 모습이 궁금해지는 거리탐방은 처음이었다.

꼬불꼬불 골목을 지나 홍익사대부고 뒷문으로 가자, 한눈에 성북동이 내려다 보였다. 산과 색색깔 지붕이 어우러진 경치는 최고였다. 지붕과 지붕이 촘촘이 맞닿은 모습이 아이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는 모

습 같았다. 그로부터 계속해서 올라가니, 여러 대사관저와 고급 빌라들이 보였다. 일년에 렌트가 얼마더라-하고 도시괴담처럼 들리던 그러한 고급 관저도 성북동에 자연스럽게 어우러졌다. 이질감도 없이 그곳도 성북동, 좁다란 골목길을 사이에 둔 옹기종기 모여든 집들도 성북동이었다. 여기에 사는 누구는가는 어떤 모습으로 사는지, 높은 장벽 위에 날카로운 철조망까지 쳐 논 그들은 어떻게 사는지- 궁금해졌다.

이 날의 성북동 탐방의 끝은 김철우, 이현숙 선생님의 자택이었다. 성북동 스카이라운지라는 별칭에 걸맞게 테라스에서 성북동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다. 후덥지근한 날, 한참을 걸어 다닌 뒤라 목이 탔다. 시원한 막걸리와 함께 정성껏 준비하신 저녁을 먹었다. 대부분 자취하는 분들이 대부분인 탐방대는 나오는 음식에 끊임없이 탄성을 질렀다. 자취를 하게 되면 가장 그리운 밥상이 반찬이 두 개 이상 놓인 밥상, 누군가와 함께 하는 밥상일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충족된 밥상은 행복했다. 끊임없이 나오는 맛난 음식도 좋았다. 어둠이 내려 시원해진 테라스도 좋았다. 그보다 더욱 행복했던 것은 밥상 위에서 이야기가 도란도란 지나가는 순간이었다. 좁은 방 안에서 벗어나 사람과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이 행복했다. 성북동에는 예전 내 이웃이 살아 있었다.

소비하면 소진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서울에서 거리를 즐기는 방법은 대부분이 소비하는 데 치중되어 있다. 참신한 분위기, 한적한 분위기를 찾아 몰려온 사람들은 그 분위기를 소비하고, 그 모든 에너지가 소진되면 다른 거리로 옮겨갔다. 나 역시 수많은 거리를 소비해온 사람이다. 항상 그렇게 소비하고, 소진되어 달라져버린 거리들을 보면 쓸쓸해지기만 했다. 변하게 만든 '외지인'을 끊임없이 비판하며, 거대 자본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며 성토했다. 하지만 나 역시도 소비하지 않고 어떤 장소를, 그 곳에 사는 사람들을 생각할 여유가 없던 것은 사실이다. 성북동천 성북동 탐방을 하면서 조금이나마 소비하지 않고 어떤 동네를 좋아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소비를 하기 위한 공간이 아니라 주민이 알고 있는 좋은 길들을 찾아다닐 수 있던 것이 행운이었다. 마을에 터를 잡고 살아가는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것 또한 행운이었다. 앞으로도 성북동 탐방이 계속 이어져 많은 사람들이 성북동을 이해하고 마을을 꾸미고 지켜나가는데 보탤 수 있었으면 한다.

강서희는 머나먼 남쪽 끝에서 태어나 5년 전 서울로 올라와서 성북동 근처를 맴돌며 일하고 있다. 화려하고 번화한 서울 한가운데, 고향마을을 닮은 성북동을 편안하게 생각하고 좋아한다. 역사와 시간이 묻어나는 길이 그를 다시금 성북동으로 발걸음을 돌리게 하는 원동력이다. 이 글은 '성북동천'이 주관하는 '성북동 마을 탐방'에 참가하고 난 후기이다.

우리 가게를 소개합니다.

한번 가고나면 다시 찾게 되는 우리동네 빵집

김홍식(대담 및 정리)



샤뽀블랑 vs 오보록

성북동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많은 가게들이 들어서고, 성북동을 보기 위해 오는 사람들도 많아졌다. 성북동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런 변화들이 성북동의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고, 성북동의 역사, 문화와 어우러지기를 바란다.
이 코너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갈 의미 있는 가게들을 소개하는 자리다. 이번 호는 성북동 빵집 이야기다. 대규모가 아니라 수제 빵집으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들어선 두 빵집이 서로 자신만의 특징을 잘 지켜나가며 성북동의 상징이 되기를 바란다. 그러니 이 글은 VS라는 제목을 달았지만, 대결을 뜻하지 않는다. 둘이 경쟁하듯 성북동의 수제 빵 문화를 만들어가기를 바라는 우리의 기대가 담긴 제목이다.

먼저 어떻게 제빵을 하시게 되었나요? 간단히 개인적 이력과 동기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샤뽀블랑 : 어려서부터 만들기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요리사나 무언가를 만드는 직업을 가지고 싶었는데 가족들의 권유로 제빵에 입문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꿈으로 김해에서 작은 빵집에서 시작했지만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어 서울로 올라와 어느새 19년차가 되었네요. 현재 제과기능장이며 제과협회 기술 지도위원 및 시험 감독위원을 하고 있습니다

오보록 : 십여 년 전 우연히 빵 장수 야곱이란 책을 선물을 받아 읽고 감동을 주체할 수 가 없어서 무작정 제빵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먼 훗날 몸과 마음의 허기를 채워 줄 수 있 는 지혜롭고 넉넉한 빵 장수를 꿈꾸면서…. 저는 2003년 SPC 그룹 입사, 2012년 퇴사 후 2012년 ~2014년 제빵을 위한 천연 발효종 연구하였습니다.



특별히 성북동을 선택해서 빵집을 시작하게 된 이유나 동기가 있으신지요?

샤뽀블랑 : 결혼해서 자리를 잡고 세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15년 정도 성북동에서 살았습니다. 성북동에서 빵집을 차리고 싶었으나 너무나 막강한 나폴레옹이 버티고 있어 선뜻 차리지 못하고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나 성북동에서 프렌차이즈가 아닌 나만의 빵을 성북동 주민들에게 선보이고 싶어 차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세 아이들에게 아빠가 만든 갓 구운 맛있는 빵을 먹이고 싶은 이유도 한몫 했습니다. 등하교 길에 가게에 들러 "아빠, 다녀오겠습니다." "아빠, 다녀왔습니다."하며 아이들이 수시로 들려 얼굴 볼 수 있는 작은 행복도 있어 더욱 좋습니다.

오보록 : 성북동은 부모님이 오랜 세월동안 계시던 곳이고, 저 또한 자라왔던 곳이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고 싶었습니다.
이곳에서 저희 가족이 새롭게 시작하는 작고 소중한 일터를 마련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상호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샤뽀블랑 : 저희 샤뽀블랑은 불어입니다. 현재 프랑스 파리에서 쉐프로 일하고 있는 친구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CHAPEAU 샤뽀는 모자란 뜻이고 BLANC 블랑은 흰색입니다. 흰색모자로 요리사 모자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 로고인 요리사 모자 안에 주도구인 거품기, 스파튤러, 밀대를 그려 넣었습니다.

오보록 : 'Oborok'(오보록)은 '오보록하다(자그마한 것들이 한데 많이 모여 탐스럽고 소복하다)의 어근으로 순 우리말 이름입니다. 작은 마음들이 모여 풍성한 기운을 내뿜는 것처럼 저희 가족도, 성북동 오보록에 오시는 손님들도 이렇게 작지만 항상 다복한 모습이길 바라는 마음에서 상호를 짓게 되었습니다.

재료에 대한 자부심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밀가루 발효종 설탕 등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케익은 발효를 시키지 않으니 사용계란이 중요할것 같습니다. 선택하는 기준이 있으신지요?

샤뽀블랑 : 빵의 각각의 특성에 맞게 여러 가지 밀가루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1등급 밀가루, 우유, 우유버터, 100%우유 생크림, 농장에서 바로바로 받아오는 계란 등을 엄선해서 사용합니다. 유럽빵(바게트, 깡파뉴 등)은 단백질 함량이 적고 회분 함량이 높은 유럽에서 생산된

밀가루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유럽 빵은 조금 거칠 수 있지만 건강빵은 건강빵답게 소프트한 빵은 소프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밀은 우리나라 토종밀인 앉은뱅이 밀(진주, 남해지역에서 재배되고 있는 토종 밀)을 그날그날 직접 분쇄하여 사용합니다. 그리고 케익에 사용하는 크림 역시 100% 우유생크림(동물성크림)을 사용합니다. 모든 재료를 직접 손질하려면 손도 많이 가고 힘들지만 직접 손질해서 사용하고 최대한 건강한 재료를 사용하려고 노력합니다.

오보록 : 유기농 밀가루, 통밀가루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밀가루 사용은 빵의 기본이라 할 수 있고, 발효종 또한 우리친환경 대추와 유기농 설탕을 이용해 직접 배양해서 사용하고 있으며, 천연 버터와 우유생크림, 1등급 A원유, 프랑스산 절임 과일 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은 작년 빵집을 시작하면서부터 직접 답사하여 팥과 서리태 등 곡식 재료를 농장과 직거래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매일 콩과 팥을 졸여서 주셔서 그 맛 또한 담백한 것이 오보록의 자랑 이기도 합니다.

판매하시는 빵종류,주재료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개인적으로 특별히 좋아하는 빵이 있는지요?

샤뽀블랑 : 유럽 빵에는 우유, 설탕, 버터, 이스트를 사용하지 않고 앉은뱅이 밀을 사용한 르방(천연효모)을 이용한 정통 스타일을 고집하고 있습니다(요즘은 변형된 일본 스타일의 건강빵에 설탕,버터,쇼트닝을사용하는 빵집들도 많습니다. 약간 소프트한 하드계열 빵이지요.). 앉은뱅이 밀20%인 식빵, 30%인 샤뽀블랑, 100%인 통밀빵이 있습니다. 또한 통호밀도 직접 분쇄해서 100%호밀빵을 만들고 있습니다. 고구마케, 고구마빵도 있는데 들어가는 고구마 역시 직접 손질해

사용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빵은 바게트입니다. 저희가게 바게트는 터키산 밀을 사용하는데요 담백한 맛과 누룽지와 같은 고소함 그리고 속은 쫄깃한 맛을 느낄 수 있어 손님들도 아주 좋아들 하십니다.

오보록 : 빵 종류는 하드계열 건강빵, 식빵, 단팥빵으로 간단한 구성입니다. 저희 빵은 대부분 설탕이나 버터를 줄이거나 넣지 않은 빵입니다. 대신 대추,오렌지,호두,크랜베리 등 견과와 건과를 재료로 합니다. 식빵은 국산 서리태, 우유 생크림, 각종 씨앗과 귀리 등이 들어있는 건강 식빵입니다. 정선에서 구입해온 팥을 넣고 뽕잎으로 반죽한 단팥빵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빵은 저희 가게에서 이름지은 '지고지순 바게트라'는 이름의 빵인데요, 순수한 맛의 고소한 바게트입니다. 밥 같아서 좋습니다. 가끔은 아침 식사로 김치나 나물과 함께 샌드 해서 먹기도 합니다.

다른 가게와의 차별화를 위해 신경 쓰며 생각하시는 점은 어떤 것이 있나요?

샤뽀블랑 : 차별화인지는 모르겠지만 신선함이 최고의 경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맛있는 어떠한 음식도 시간이 지나면 맛이 없어지니까요. 당일생산 당일판매를 원칙으로 하며 갓 구운 빵을 고객님들께 공급하려고 노력합니다. 저희 아이들 삼남매에게 샤뽀블랑 어떤 제품도 맘놓고 먹일 수 있는 정직한 빵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빵들은 푸드뱅크와 푸드마켓에 기부을 하고 있습니다

오보록 : 저희는 빵 이외에도 유기농 커피와 수제잼, 다양한 수제 과일청 음료도 함께 하 고 있습니다. 수제를 고집합니다. 왜냐하면 음

식은 손길을 거칠수록 그 맛이 더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손길은 정성입니다. 정성은 마음입니다. 이렇게 마음을 담은 음식을 소중한 분들과 나누는 가족 같은 분위기를 생각하면서 오보록을 일구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오시면 집같이 푸근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혹시 제빵사로서 나만의 노하우가 있다면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제빵사로서 고집하는 것이나 목적이 있으신지요?

샤뽀블랑 : 저만의 노하우는 정성입니다. 좋은 재료와 위생 등은 기본이고 정성을 다해 빵 하나하나를 만드는 것과 그냥 일로서 만드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으니까요. 또 하나는 끊임 없이 노력하고 연구하고 테스트해 가며 나만의 스타일의 빵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이지요. 그 하나의 예로 저희 샤뽀블랑에만 있는 뺑오프리와 샤뽀블랑 입니다. 뺑오프리와 샤뽀블랑은 일반빵의 4배정도 되는 크기로 크게 만듭니다. 크게 만드는 이유는 고온에서 긴 시간을 굽기 위함입니다. 견과류나 앉은뱅이밀의 향이 깊이 배어 나오고 수분이 유지되어 더욱 촉촉하고 구수한 향이 나기 때문입니다.

오보록 : 노하우라면 손맛? 밀가루와 물이 만나면 반죽이 되지요. 반죽은 살아 있는 생명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살아있는 아이를 잘 만져주고 토닥여주고 기다려 줘야지 예쁘게 잘 자라난답니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 전 이 아이들을 잘 어루만져주는 엄마의 손맛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굳이 고집 하는 것 이라면, '공부하는 빵쟁이가 되자'입니다. 제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연구하고 시도하고, 공부하는 자세로 초심을 잃지 않으려는 것이 제빵사로서, 저 개인의 약속이자 고집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 처음 빵을 시작 했을 때의 꿈과 가까워질 수 있으니까요.

약간은 추상적인 질문인데 만들면서 하시는 생각이나 그런 것이 있나요?

샤뽀블랑 : 빵을 만들면서, 판매 하는 사람이기 전에 내가 고객의 입장이 먼저 되어 봅니다. 과연 이 금액을 지불하고 기쁘게 살 수 있는지를 먼저 생각 합니다. 내가 먹어서 맛있고 만족스러워야 고객들도 맛있게 드실 수 있기 때문이지요. 모든 제품 하나 하나에도 완성도를 주기 위해 노력합니다.

오보록 : 제 빵은 밥 같은 빵이고 싶습니다. 밥집 아줌마가 건강한 밥상을 차리듯이 저도 저희 집 테이블에 빵 한상 차리면 배불리 드시는 모습이 연상이 됩니다. 그래서 오보록 빵 진열대는 밥상 모양으로 특별히 제작 했답니다.

기억에 남는 손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손님은?

샤뽀블랑 : 처음 저희 샤뽀블랑에 오신 고객의 표정이 못 미더운 표정의 떨떠름한 표정으로 빵 한 개만 골라 사 가시더니 2번, 3번 오시면서 밝은 표정으로 바뀌고, 지금은 단골 고객이 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홍보도 많이 해 주시고요. 참 감사하고 행복한 일이고 한편으로는 제빵사로서 뿌듯함을 느낍니다.

오보록 : 두달 전 오픈 때 처음 오셔서 거의 매일 오시는 손님이신데, 빵을 잘 먹지 않았던 아이들이 오보록 빵을 매일 아침밥으로 달라고 해서 퇴근하실 때나 아님 점심시간에 짬을 내어 장을 보시듯 잠깐 들러 빵을 들고 가시는 손님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밥집 아줌마의 본분을 다 한 것 같아서 더욱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우리 가게만의 자랑이나 홍보를 한마디 해 주시죠.

샤뽀블랑 : 샤뽀블랑제품은 직접 반죽하여 당일 생산 당일 판매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토종밀인 앉은뱅이 밀을 직접 분쇄하여 천연 효모종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치나 청국장처럼 본래 천연 발효음식인 빵은 과일, 곡물등에 존재하는 천연 효모로 부풀게 할 수 있습니다. 보기에는 투박해 보이지만 오랜 시간 발효를 거쳐 만들어 지기 때문에 천연 발효빵만의 깊은 맛을 냅니다. 천연발효빵의 좋은 점은 속이 더부룩하지 않고, 유기산이 깊은 맛을 내며, 천연 발효종속의 미생물이 PH를 낮춰 유해 세균을 막아주고, 발효 과정에서 향산화 효소들이 생성되므로 건강에 도움이 되는 등 아주 많습니다.

오보록 : 저희 가게엔 아버지, 어머니가 계십니다. 다소 젊은이들처럼 서비스가 재빠르지 않더라도 편안함과 다정한 마음으로 손님들을 맞으십니다. 그리고 저희 가족은 이 오보록을 꾸려나가면서 서로 돈독해졌다고 할까요? 가족이란 이런것 같습니다. 깨알같이 밉다가도 씩 한번 웃으면 모든게 이뻐보이는…. 이런 집 같은 빵집에서 속편하고 건강한 빵맛을 보시는 것도 좋으실 겁니다.

가게의 입장에서의 성북동이 앞으로 어떤 동네가 되었으면 좋은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샤뽀블랑 : 가장 번화한 서울 속에 시골 같은 느낌의 정감 있고 사람 살아가는 냄새가 나는 인간미가 있는 옛스러운 성북동…. 지금 이대로 변화 없이 유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보록 : 우선 성북동 하면 역사와 문화를 자랑하는 옛스러움과 현대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성북동만의 또렷한 색깔이 있는 동네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큰 빵집과 작은 빵집들이 각자 본인들의 개성으로 빛깔을 내어 더불어 공생 하면서 성북동을 찾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즐거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북동 하면 문화와 역사와 빵이 있는 곳…, 이라고 기억되길 바랍니다.

-

김홍식은 이 글을 인터뷰하고 정리하였다. 그는 본지 편집위원이며, 성북동에서 40년이 넘게 살았고, 지금도 북정마을에서 부모님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 성북동 사람들이 성북동을 떠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회사원이다.



사라지기 쉬운 현수막 프로젝트

집, 사람 그리고 시간

최영환

꼬불꼬불 가파른 골목길을 따라 줄줄이 늘어 선 한옥과 양옥 그리고 저층 공동주택. 만해 한용운이 살았던 심우장과 소설가 이태준이 살았던 고택을 카페로 개조한 수연산방, 그리고 최순우 선생 옛집 등 그 주인만큼이나 우리 건축사에 중요한 사료적 가치를 지닌 근대 도시한옥이 즐비한 이곳. 성북동 골목길의 풍경은 오늘도 여전하다. 다만 재개발 반대 주민들이 이곳저곳에 걸어 놓은 '붉은색 현수막' 만이 그 과거로의 시간여행을 마치는 종착지를 알리는 이정표처럼 남겨져 있을 뿐이다.

현수막은 공적 공간 안에서 자기 표현의 적극적인 수단임과 동시에 그것의 존재가 공간의 정체성을 규정짓기도 한다. 오늘날 성북동의 풍경은 집집마다 내걸린 붉은색 현수막에 가려져 과거의 고즈넉함은 간데 없다. 우리는 그 현수막 위에 새겨진 '죽음을 불사하며 내 집을 지키겠다!'는 격정적인 문구에서 거주민이 처한 상황의 절박함과 문제 해결의 시급함을 절감한다. 동시에 이 절규의 문구들이 새겨진 수많은 현수막들은 당사자는 물론 주변 이웃들의 일상마저도 투쟁의 장으로 만들어버렸다.

〈사라지기 쉬운 현수막〉 프로젝트는 2년 전 재개발과 관련해 지역

의 주민들이 첨예한 갈등을 겪고 있던 시기에 기획되었다. 그러나 자신의 일터와 집이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극단적인 위기 상황에서 주민들이 예술을 매개로 자신의 삶을 조망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요즘은 주민들 간의 '개발과 보존'을 둘러싼 치열한 논쟁이 잦아들고 재개발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우세해지면서 주민들이 느끼는 집단적 위기감 또한 진정되는 분위기다. 그럼에도 성북동 주민들은 그 현수막을 거둘 생각이 없어 보인다. 이들에게 이 작은 천 조각은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과 초조, 이로 말미암은 무력감을 잠시나마 잊고, 세상에 자신의 존재를 증명해주는 도구인 셈이다.

〈사라지기 쉬운 현수막〉 프로젝트는 주민들에게 새로운 형태의 자기 표현 수단을 제안한다. 원색조의 현수막은 건축물의 일부처럼 설치된 조형물로 대체된다. 작은 거울 조각들로 이루어진 이 조형물은 태양빛을 반사해 만들어내는 빛의 조합을 통해 주민 각자가 생각하는 '내 공간의 의미'가 담긴 짧은 문구로 주변 도로 위나 담벼락에 드리우게 된다. 그 '빛의 현수막'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 형태를 달리하며 그 존재를 드러내고 사라지기를 반복한다. 이를 통해 주민은 재건축이라는 집단적 갈등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제한되었던 자기 표현의 물리적 영역을 한시적으로나마 확장한다.

"삼년 전 돌아가신 어머니 가끔 이 집에 놀러 오시나요"
"아름다워라 삼대가 사는 이 집"
"폭염세월 견디고 곱게 물들 성북동"

사실 재개발로 비롯된 사회적 갈등이 공동체 내부의 반목만 초래한 것은 아니다. 그 대가로 우리는 그간 돌이켜 보지 못한 개개인의 주체적이고 독립적인 삶의 가치를 스스로 바라볼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성북동 주민들이 쓴 이 글들은 그 '반추'의 결과물이다. 더하여거창한 개발의 역사에서 너무도 쉽게 지워져간,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사적 공간'에 관한 자기 기록이다. 마치 태양빛의 반사를 통해 잠시 동안 주변에 머물다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리지고 마는 이 프로젝트의 결과물처럼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록은 내일의 태양이 떠오름과 동시에 다시 쓰일 것이다.

–

최영환은 미술가이다. 그동안 성북동에서 '동네 스토리 닷 컴'이라는 마을 방송을 통해 주민과 호흡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를 마련하기도 했다. 이 글에 나오는 〈사라지기 쉬운 현수막〉은 햇볕에 반사되는 거울을 통해 성북동 주민의 생각을 글자로 새기는 공공미술 작업이었다. 그는 국립 현대 미술관의 지원으로 지난 6월부터 7월 사이에 성북동 3구역의 세 곳에 이 햇볕 현수막을 설치하는 작업을 했으며, 이 글은 그 작업에 대한 이야기다.

한장 스케치

갤러리 17717의 시작을 알립니다

성북동 177-17번지

www.17717.co.kr









특집, 골목 이야기 1

시간이 머무는 곳, 북정 마을

성북동의 특징 중 하나는 골목으로 이루어진 마을이라는 데 있다. 성북동은 초입부터 동네 끝까지 골목으로 연결되어 있다. 본지는 이번 호부터 매호마다 성북동의 골목 마을들을 탐방하고, 탐방기와 그 골목에 사는 사람의 인터뷰를 싣는다. 이번 호의 골목 기행은 북정마을이다.




북정마을 안내도
① 심우장(尋牛莊)
② 비둘기 공원
③ 마을회관 / 경로당
④ 공중화장실
⑤ 마을버스 정류장
⑥ 북정 미술관 / 극단 서울과담
⑦ 할머니 경로당
⑧ 모정 (휴게쉼터)
⑨ 성문
⑩ 서울성곽
⑪ 마을 안내도 / 현위치
⑫ 구멍가게

북정마을 골목 이야기

장영철

탐방 일시 : 5. 31(토) 15시 ~ 16시 30분
출발 장소 : 성북초등학교 정문 입구
코스 : 쌍다리 식당 - 북정마을 – 주민 자택방문 – 주민인터뷰 – 심우장 골목 – 우정의 공원

성북동은 이제 서울의 대표적인 골목 투어 코스로 알려져 있다. 주말이면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성북동을 찾아온다. 어떤 이는 외국에서나 볼 수 있는 저택이 볕 좋은 언덕위로 즐비한 부촌으로 상상하고 성북동을 찾아온다. 성북동을 방문한 외지 손님들은 성곽을 걷고, 고택을 방문하며, 이국적인 대사관들과 재벌가 저택의 위압적인 품격에 주눅 들고, 내가 이곳에 이방인이로구나 하는 이질감을 느끼기도 한다.
이는 지나치게 왜곡된 성북동에 대한 선입견에서 비롯된 결과다. 성북동은 결코 부촌만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다. 성곽 아래나 3구역 일대에는 처마를 맞대고 가난을 나누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 부촌의 어마 무시한 담벼락도 없고, 이웃의 얼굴조차 모르는 삭막함도 그곳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오랜 새월을 함께 견디며 살아온 사람들의 삶의 풍경이 그곳에는 배어 있다.
오늘 우리가 찾은 성북동은 성북동의 가장 깊은 속살이며, 성북동을 가장 마음 깊이 품고 살아온 분들의 고향 같은 곳이다. 그들의 향기와 모습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곳, 바로 북정마을이 우리의 오늘 탐방지이다. 북정마을은 여느 서울의 골목투어에서 느끼는 인위적인 꾸밈이나 장식 없는 민낯의 마을살이를 볼 수 있는 몇 남지 않은 서울의 서민동네이다.

오월의 마지막 날, 성북초등학교에서 시작된 골목 투어는 때 이른 무더위와 함께였다. 북정마을 입구에는 이름만 남은 쌍다리가 있다. 지금은 맛집인 돼지불백 기사식당으로 유명한 곳이지만, 예전 성북천이 복개되기 전에는 쌍다리가 놓여있어 쌍다리라는 명칭을 기억하게 해주는 곳이기도 하다.
북정의 첫 인상은 여느 서울 동네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고 평범하게 시작되었다. 얼마간 오르막을 여유롭게 걷다보면 삼거리가 나오고, 차츰 옛 기억 속의 서울모습을 간직한 주택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다.
이어지는 오르막을 걷다보면 사람이 살지 않는 빈 주택인지 어느 예술가의 작업실인지 독특하게 자리잡은 반지하 공간이 호기심을 자극하기도 한다. 오르는 내내 오랜 기간 정원을 가꾸고 공들여 단장한 듯한 주택들이 길 주변으로 나란히 줄지어 있다. 특히 주변에 아파트라고는 한 채도 볼 수 없고 단독주택과 낮은 연립들이 가지런히 지어져 조용한 성북동 마을에 들어왔음을 실감하게 된다.
서울의 여러 지역들처럼 북정마을도 재개발을 둘러싼 갈등으로 첨예하게 맞서 있다는 것이 서글픈 느낌을 들게 하기도 한다. 70~80년대 서울 모습을 간직한 북정마을이 언제 재개발로 여느 도심의 판박이 다세대 주택이나 아파트 혹은 돈 많은 사람들의 고급 한옥으로 탈바꿈 될지도 모르는 일이다.

마을 곳곳에는 70년대의 옛 슬레이트 벽돌로 담을 쌓은 주택과 재



개발 갈등을 보여주는 벽보가 혼재해 있다. 옛 추억을 간직한 마을이 혼란스러운 풍경이 되어버린 것 같다.
아이러니 하게도 재개발 논란 속의 북정마을을 병풍처럼 감싸고 있는 것은 500년 넘게 서울을 품고 있는 서울성곽이다. 문화재란 이름으로 보존되고 50년 넘게 주민들의 삶과 함께 한 마을이 재개발이란 미명하에 사라지거나 흩어질지 모르는 처지가 되어버렸다.

성곽이 보이기 시작하면 본격적인 북정마을 골목 투어가 시작된다. 예전 북정마을 연탄가게 였다는 파란 대문 집 사이로 난 골목을 따라가면, 어릴 적 숨바꼭질 놀이라도 했을 법한 좁은 골목으로 들어서게 된다. 어디로 나 있는지 모를 골목길 사이로 빠져 들어가면서 고추며, 상추, 깻잎 그리고 이름 모를 화초들을 붉은색 대야에 가꾸어 골목 텃밭을 만들어 놓고 지내시는 어르신들도 만났고, 뒤돌아 보이는 성곽과 북정의 아랫마을을 내려다보며 도심의 혼잡함을 벗어나 여유로움도 느껴 보았다.
좁은 골목을 따라 난 북정마을의 동쪽 끝에는 막다른 골목이 하나 있다. 덕수교회와 이종석별장, 성북구립미술관, 대사관저와 북정마을이 묘한 대치점이 되는 경계의 자리다. 그곳에서 바라보는 성북동의 풍경은 마치 그림처럼 아름답다.
동쪽 끝 골목의 아래에서 빨래를 너는 윗집 어머니와 옥상 텃밭을 가꾸는 아랫집 아주머니의 정겨운 대화를 엿듣는다. 대화 속에 묻어나는 북정마을의 사람 사는 향기가 물씬하다. 골목 끝에서는 멀리 성북동을 대표하는 간송미술관도 보인다.
일제 강점기 민족정신의 보존을 위해 전 재산과 바꾼 귀중한 문화재를 보관하기 위한 보화각의 또 다른 이름 간송미술관. 멀리보이는 간송미술관 옥상의 초록색의 색감은 혹시 북정마을 여기저기 가꾸는 텃밭 같은 것이 아닐까 하는 상상을 해보며, 북정마을 가장 높은 북정경로당을 향한다.
북정마을 경로당은 성북동의 하늘이요 가장 시원스러운 풍광을 간직한 곳이다. 사방어디도 막힌 곳이 없다. 북악산이 보이는 곳으로 북정마을을 경유하는 마을버스의 회차 지점이기도 하다.
성북동하면 떠오르는 간송 전형필선생의 간송미술관이 내려다보이는 이곳이 성북동의 진짜 명당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북정경로당을 지나 북정 미술관을 거쳐 민족시인 한용운선생의 심우장으로 내려오는 내내, 나는 마을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보았다. 마을은 사람이 살아가는 곳이고, 그 사람들이 오랜 세월 일구어놓은 생활문화가 살아있는 곳이리라. 그렇다면 북정마을이야말로 다른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간직해야 할 우리의 문화가 아닐까? 부디 재개발의 광풍을 견뎌내고 북정이 지금의 모습 그대로 남아있기는 비는 마음이 더욱 간절해진다.

–

장영철은 성북동에 대해 관심이 많은 직장인이다. 그동안 성북동을 공부하는 모임에 함께하기도 했으며, 성북동이 이웃들과 정답게 살아가는 행복한 성곽마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고 있다. 본지 편집위원이기도 하다.

인터뷰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살고 싶어요

북정마을 주민 박정순(75세)씨

안녕하세요!! 저희는 <성북동 사람들의 마을 이야기>라는 마을 잡지를 만들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성북동에 대부분 거주하고 있으며, 누구보다도 성북동이라는 마을을 사랑하고 가꾸어 나가고 싶은 사람들이지요. 저희들은 '성북동천'이라는 모임에 속해 있습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북정마을에서는 언제부터 살아 오셨나요?

성북동에 산지는 한 50년 정도 되었습니다. 원래 저희 할아버지(남편)는 서울 토박이고 저는 일산 옆의 운정이라는 시골에서 살다고 서울로 시집을 오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매사에 정직하고 또한 어떤 일에 대해서든 고집스럽게 지킬 것은 지키며 살려고 노력해왔습니다. 자식들도 그렇게 키워왔고요.

혹시 북정마을로 이사 오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나요?
처음에는 동국대학교 뒤편의 필동에서 결혼 후 신혼생활을 시작했지요. 그러다 분가하여 성북동 초입으로 이사와 살게 되었고, 이후에 지금의 북정마을에 집을 구입하게 되어 현재까지 살고 있습니다. 어느덧 그렇게 50년 이라는 세월을 여기서 살았네요.



지금까지 사시면서 북정마을이어서 좋은 점은 어떤것 들이 있으셨나요?
예나 지금이나 북정마을은 다른 어느 곳보다 인심이 좋은 살기 좋은 동네지요. 지금도 겨울 김장철이나 집안에 특별한 행사가 있는 날이면 이웃끼리 서로 일을 도우며 품앗이 하는 정이 남아있고, 이웃 간에 우애가 깊어 친척들처럼 서로 가까이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마을사람들이 몇 십 년째 아래 윗집으로 지내 더욱 더 친근감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이웃사촌 이라는 말이 있는데 진짜 친척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 동안 이곳에 사시면서 불편한 점은 없으셨나요?
이곳에 살면서 특별히 불편하다고 느낀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다 같이 어렵게 살던 시절이었고, 불편함 보다는 당연히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라 생각하며 살아 왔습니다. 서울에서 사는 일상의 모



습이라 생각하니 불편함으로 느끼기 보다는 그냥 받아들이며 살아온 것 같아요. 주변의 대부분에 사람들 역시 비슷하게 살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비록 산꼭대기에 있는 마을이지만, 교통도 특별히 지금까지 별다른 불편 없이 지내왔습니다. 오히려 산꼭대기라 경치도 좋고, 공기도 좋아 찻길에서 먼 것이 더 좋기도 하구요.

혹시 남들은 잘 모르는 북정마을만의 특별한 장소가 있으면 소개 한 번 해주시죠.

글쎄요. 살아가기에 바빠 어느 곳을 특별히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삶의 터전으로서 살았으니 성북동의 모든 곳이 우리에게는 특별한 곳이지요.

우문현답이시네요…. 그래도 꼭 한 곳을 말씀해 주시면 어디가 기억나시는지요?

마을 주변을 보셔서 아시다시피 예전부터 북정마을과 함께한 성곽과 주변의 산들이 특별하다면 특별하다고 할 수 있죠. 무엇보다 서울이지만 공기가 다른 지역과 다르게 좋습니다.

예전에는 성곽 아래에 자그마한 개울이 있었어요. 마을에 사람들이 하나 둘씩 모여들면서 개울이나 마을주변의 조그만 동산 아래에 집을 지어 살기 시작 했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 북정마을이 만들어진 것이지요. 지금은 모두 복개 공사를하고 길을 만들어 옛 모습이 남아있지 않게 되었지만요.

몇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북정마을에 사시면서 이것만은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게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글쎄요. 굳이 꼽자면 성북동을 재개발 한다 뭐 이런 것 때문에 뒤숭숭한 것이요. 재개발 문제 때문에 이웃 간에 다른 의견이 생기고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재개발은 북정마을에 사는 마을 사람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재개발보다는 현재 살고 있는 곳을 지켜가면서 새롭게 가꾸고 집도 새로 고쳐가며 그냥 이웃들과 어울려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지금 이대로 살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북정마을에 사시면서 기억에 남는 추억이 있으면 이야기 해주세요.

50년 전 북정마을에 처음 이사와 살게 되었을 때만 하더라도 상수도가 없어 아랫동네에서 물을 길어다 사용했고, 연탄 배달비를 아끼기 위해 직접 커다란 고무다라를 머리에 이고 연탄을 나르기도 했었지요. 지금은 마을버스가 다니지만 예전에는 버스도 지금의 북정마을까지는 연결되어 있지 않았고요. 제 기억에 버스를 타려면 삼선교까지 걸어 가야했고 그 이후에는 성북초등학교 앞 까지 버스가 왔었어

요. 그런 옛 기억들이 새삼 떠오르네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좋은 추억은, 제가 2남1녀를 두었는데, 어려운 살림 속에도 자식들이 모두 특별한 말썽 한 번 없이 잘 커 주었다는 거지요. 이것이 다른 무엇보다도 부모로서는 마음에 남는 가장 좋은 추억이겠지요. 현재는 분가해서 잘 살고 있고 손자 손녀들도 모두 대학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살아온 세월동안 이웃들과 지내온 모든 것들 역시 좋은 추억이고요. 지금도 이웃들과 즐겁게 어울려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곳에 살다가 떠나 지금은 다른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도 현재 친목계를 하며 정기적으로 만나서 옛 이야기를 하는 등 즐겁게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쭤 볼게요. 혹시 앞으로 북정마을이 어떤 모습으로 남아 있으면 하시나요?
뭐 특별히 어떻게 남아있길 바란다는 무슨 거창한 말 보다 그냥 지금의 있는 모습 그대로 있기를 바래요. 더불어 이웃 간에 정도 계속 남아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당연히 재개발도 안 하고 이대로 변함없이 있는 그대로 살고 싶구요.

이렇게 긴 시간 내주시고 좋은 말씀 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단팥 죽

최헌자

울적해지는 날
팥을 삶는다.
팥밥을 짓고, 또 단팥죽도 끓인다.

뜨거운 단팥 죽, 한 숟갈 뜨면,
늘어지는 찹쌀떡 사이로
미소 띤 엄마 모습이 보인다.

따끈한 아랫목이 그립거나,
눈이 펄펄 내리는 날엔
단팥죽을 끓여 먹었던 그때.

정겹던 엄마와 나는
단팥죽 속에 머물고 있다.

아버지의 사이판

최성호

전신은 땀범벅이 되고
끓는 쇠죽 솥뚜껑 열때처럼
확 차오르는 뜨거운
밀림 숲 속을 걷고 있다.

1995년 10월의 어느 날

나는 어느새
아버지가 그렇게도 한 맺혔던
악몽의 섬 사이판 밀림 속에 있었다.

이 밀림 속 어딘가는
태평양 전쟁 때 강제징용 총알받이로 끌려온 곳!
이곳에 땅굴을 파고 얼음 짱 같은 냉기로 떨며
모진 목숨 연명하여 살아남은 한 맺힌 아버지의 땅!

일본군 최후의 땅굴 투쟁지를 둘러보고 있는 내 마음은
찌릿한 울분과 서러움이 북받쳐 오른다.

최후의 1인까지 대항하다가 전원이 몰사 했다는 곳
칠흑 같은 어둠과 음습한 공포로
어느새 등줄기엔 식은땀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악마의 뱃속 같이 공포스럽고 미로 같은 땅굴.

으-콜록콜록
흐-으 콜록 콜록 콜록 흐-으읍 퇴에.

곧, 숨넘어갈 듯
커다랗고 둥근 공처럼
오강 끌어안고 웅크리고 앉아
가쁜 숨 몰아쉬며
송진처럼 끈끈하고
비누거품 같은 가래 뱉어내려고
몸속 밑바닥 에서부터 온힘을 끌어올리려니
얼굴은 온통 붉은 지렁이가 감싸듯
굻은 핏발에 충혈 된 눈!
기진하여 힘들고 지친 아버지 모습

국민학교 3학년 때
학교 다녀온 어느날 오후

아버지 따라서 소 꼴 베어 돌아오는 길
느적금 넘어 동네어귀 방죽 마루에 앉아서
해 기우는 망째산(망재산)을 바라보았다.
마치 어머니의 웃 저고리 소맷닢 처럼
붉은 노을로 곱게 물들어 있었다.

이 애비가 말여, 이곳 오얀두(외연도) 들와살기 한참 전에, 그렁께 니가 생겨나기두 전에 왜정때 왜놈들에게 강제 징용으루다 저~멀리 남태평양 사이판군도 라는 섬에 끌려 갔었구먼 날마다 뱡기 폭격으루다 수십명씩 죽어나가는디, 기왕지사 이래두 죽구 저래두 죽을목심 도망이나 쳐보자! 워디가 되얐든 한걸음 이라두 고향 가까이가서 죽기루 결심허구서 같은 조선사람 싯하구(3명) 갱신이 탈출혀설랑, 밤낮 죽을둥 살둥 정신읍시 도망치다가 아! 시방처럼, 마악 해 떨어질라구 헐 때서야 정신 차리구 주위를 살핑께, 아! 바루앞에 바다가 뵈잔여, 그려서 바루 그 자리에다 땅굴파고 그 속에서 숨어서 지냄서 오줌을 받아서 입술 추김서 모진목심 연명하구 살다가, 후-우 이렇게 냉이 들어가꾸 해수천식이 되부렀다.
쿨럭 흐-으! 후~우 (가쁜 숨 몰아쉬는 아버지)
그려두, 해방되기 전 해에 다행 으루다가 양놈들(미군) 포로가 됐응께 살 수 있었지, 해방 되구, 포로 생환으루다 귀국한다는디, 아! 이물에서 고물두 안뷔는 겁나게큰 군함타구 도착혀서 내리구봉께, 아-거기가 저~어 군산항 이드랑께! 고국 땅을 밟응께 월매나 좋든지! 그려서, 에라 죽을 목심 살아왔응께 실컨 구경이나 좀 허자 생각 허구설랑은 무작정 항구서 다시 객선을 줘 탓드만, 아! 그 배가 이 오얀두(외연도)에 오잔컷어! 들옹께, 인심두 좋구, 또 옛날 최씨덜 귀향처루다가 말(마을) 거짐 다 최씨구 헝께루 워떻게 잘들 혀주구 허는지, 정부치구 살만 허다싶구, 으른들이 니 에미허구 짝져준다구 중신을 놓구 헝께 맴이좀 돌아스드먼, 그려서 걍 응뎅이 부치구 이렇게 살게됭겨! 후-우 내가시방 이렇게 지침허다 강그러져 죽을꺼 같혀두, 금방 그렇게 안죽는다. 아! 내가 워떻게 살아왔는디, 암만! 후-우.

숨 가빠하는 아버지의 옆모습은 저녁노을 지듯이 그늘져 보였다.

사이판 통곡의 절벽에서 바라다보는
검푸른 바다는 수많은 영혼들의 절규와 통곡처럼
게거품을 내품으며 울부짖고 있었다.

그냥 냅둬어

박성애

살아볼수록 좋은 곳
강남으로 안 가고 이사온 곳--
공기도 다르데
풍광도 다르고
맛도 다른 곳

전원의 한가로움과
멋스런 주택의 조화
뭐-휴먼 타운이라나
서울에서 가장 살기 좋은 마을이라

어디 살아요?
성북동요
아- 아 그으래요
부자 동네 사시네요

한가지 더 있어요
역사문화지구래요
자랑스럽게 대답한다

뭣이여?
재개발?
아녀
여긴 성북동이어서 좋은 곳이거든!!!

–
이 시들은 '성북구 예술창작소'에서 주관한 '시창작교실'에 참가한 어르신들의 작품입니다.

성북동천 이야기 하나.

성북동, 시로 물들다



지난 5월 25일 오후 3시, 최순우 옛집에서 첫 번째 성북동 시 낭송회를 개최했습니다.
성북동천과 성북구 예술창작소, 내셔널트러스트 세 단체가 함께 개최한 이 행사에는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여 봄날 하루를 시심에 젖었습니다. 시인 네 분이 자작시를 낭송했고, 성북구 예술창작소 시창작 강의 수강생인 어르신들이 직접 지은 시를 들려주기도 했으며, 음악 공연도 함께 한 이 행사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성북동천 이야기 둘.

마을 학교 개최 예정

성북동천이 여는 마을 학교가 올해도 열릴 예정입니다. 오는 9월부터 진행될 마을 학교는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강좌명	날짜/시간	장소	내용
좋아서 하는 공부	8월 1일 19시	카페 티티카카	성북구 지역 내 주민 및 활동가들의 마을공동체 활동 경험 / 사례 공유
건축 교실	9/15(토) 부터 10회차 성 인 반14:00~16:00 어린이반10:00~12:00	성아들 협동조합 사무실	건축에 대한 이해, 이야기
시인과의 만남	월 1회 계획 중	성북동 카페들	작가와의 만남을 통해 시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낭송도 하는 행사
이물 제작 프로젝트	계획 중		

성북동천 이야기 셋.

신입회원 모집 안내글

“성북동 마을공동체 성북동천은

마을 잡지 발행, 마을 탐방, 마을 학교 등
마을공동체 활동에 관심있거나 참여를 희망하는 분들을 기다립니다.

지역주민, 지역 내 생활권자, 혹은 성북동에 관심있는 개인이나
단체 모두 참여 가능합니다.”

회비 및 후원금 입금 계좌 안내
우리은행. 1006-901-392512 [예금주: 성북동천]

이메일. seongbukdong.town@gmail.com
전화. 010-2366-6238

-

성북동천은 지역주민과 지역에서 활동하는 민간 법인·단체, 전문가 및 예술인그룹으로 구성된 컨소시엄/네트워크형 연대조직으로, 마을공동체 형성과 주민간 연대를 활성화하기 위해 설립한 비영리 단체입니다. 성북동 주민모임, 성북동 초록옥상(예술인그룹), 스페이스 오뉴월(갤러리), 내셔널트러스트 문화유산기금(비영리 재단법인), 희망제작소(시민단체)가 함께 합니다.

성북동천 이야기 넷.

마을 잡지 후원업체 명함 광고

1.







2.



3.



명함 리디자인(re-desgin) 진행.

마을 디자이너, 김선문

sunmoonceo@gmail.com

010. 4211. 1171

1. 미소에스테틱 | 청정 산소 속에서 피어나는 아름다움

2. 티티카카 | 열린 부엌 & 동네 사랑방

3. 바퀴달린 그림책 | 우리 아이가 만드는 그림동화책

성북동 사람들의 마을 이야기

성북동 사람들의 마을 이야기
마을 잡지 2호

2014년 7월 31일 발행

편집 | 김홍식 박진하 오예주 장영철 최성수
디자인·사진 | 김선문(초록옥상)
펴낸곳 | 성북동천

성북동천
서울시 성북구 성북동 177-17

010. 2366. 6238

〈비매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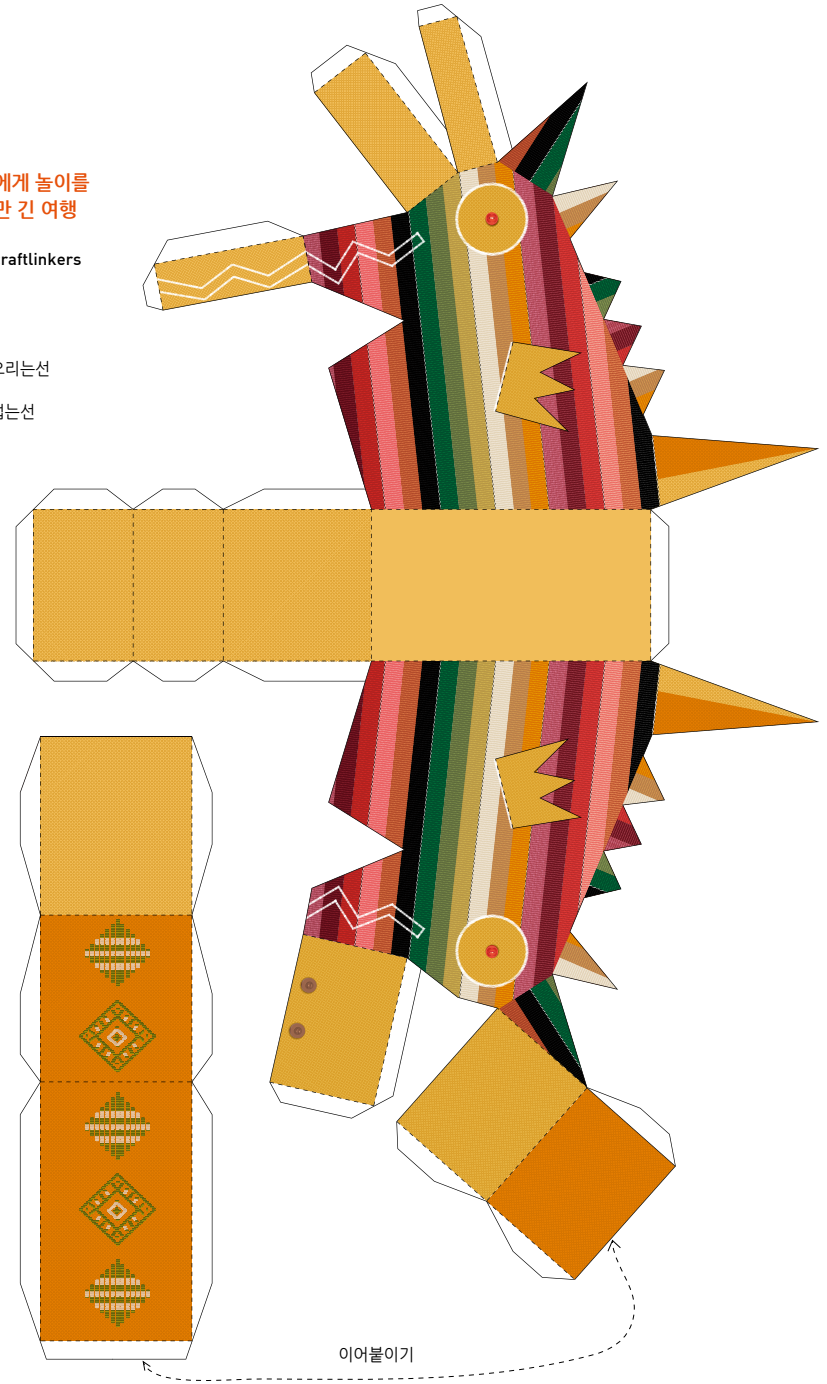
CRAFTLINK

남미의 아이들에게 놀이를
들려주는 짧지만 긴 여행

Craft-Link.co.kr
Facebook.com.craftlinkers

오리는선

접는선



압축화로 그린 성북동 / 안시은



–

안시은은 성북동에서 태어난 토박이로 현재 이화여대 병설미디어 고등학교 2학년이다. 미술을 전공하고 있으며, 장래 화가가 되는 것이 꿈인 학생이다.